



The Real series ipsifly
provide questions in previous
real test and you can practice
as real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2025학년도 수능 시험 대비

수능기출 학력평가 3개년 모의고사 Light 15회

- 2022~2024학년도 최신 3개년 수능기출 학력평가 15회
- 공통+선택 [언어와 매체] 과목만을 수록한 효율적인 구성
- 2024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까지 [총 675문항]
- 모든 선지에 [정답과 오답인 이유]를 수록한 입체적 해설
- 고난도 문제도 혼자서 학습이 충분한 [문제 해결 꿀팁]
- 회차별 [등급 컷·SPEED 정답 체크표·STUDY 플래너]
- 실전 연습에 꼭 필요한 OMR 카드 제공

고3 국어

공통+선택 [언어와 매체]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수능 시험장에 가면 많은 학생들이 낯선 환경과
긴장감 때문에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최소화하려면 실제 수능 시험지와
비슷한 크기의 문제지와 OMR 카드로
시간을 정해놓고, 동일한 조건 속에서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을 검토해 주신 선생님

강다연 국어 전문과의	김민규 창원문성고등학교	류주연 하이이이학원(전원)	이다은 오현고등학교	장인산 경상고등학교(창원)
강성운 나룻말국어학원	김민규 스파르타학원	박수일 청어람 국어	이석호 이석호국어학원	정훈 정훈국어학원
강원국 한수위 국어	김석용 이상국어교육학원	박은정 옹골산국어학원	이세연 오현고등학교	차환진 버리국어학원(창원)
강현영 오현고등학교	김선우 국어 전문과의	방유정 해운국어학원	이소녕 창원남고등학교	채슬기 국어 전문과의
고대희 고대회국어학원	김성주 국어 전문과의	배민규 창원남고등학교	이수경 국어 전문과의	최우림 국어 전문과의
고명훈 나룻말국어학원	김세영 해운대국어학원	백조희 숲솔국어학원	이수영 지성학원	최정윤 최정윤국어학원
김경숙 케이트에일학원	김신영 오산창날학원	설규환 강남대성학원	이정덕 이정덕국어학원	최진욱 옥샘국어학원
김경주 김경주국어학원	김종덕 갯 국어	성원철 정상학원	이준석 버리국어학원	최창국 최창국어
김광철 다시국어	김진욱 국어 전문과의	손지원 자이원국어학원	이지유 차준호국어학원	홍기환 오현고등학교
김기성 책임논국어학원	김재민 마산삼성엘리트학원	송문원 지하연학원	이현옥 인국어학원	황재영 성자국어학원
김기태 국어의힘	남충현 청아람국어논술	신종수 세종학원	이형 이형국어학원	
김다미 성민국어학원	도담 한빛국어학원	안혜지 다이나믹학원	임종수 일성국어전문학원	
김대현 제일국어학원	류도환 류도원국어학원	윤희지 마산삼성엘리트학원	장유진 국어 전문과의	

이 책의 디자인과 실린 모든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입시플라이에 있습니다. 무단 복사와 무단 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REAL
ORIGINAL

수능 기출 학력 평가 3 개 년 모 의 고 사

고3 국어 [Light]

공통+선택 [언어와 매체]

Contents

I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1회	2023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01쪽
02회	2022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17쪽
03회	2021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33쪽
II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4회	2023학년도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49쪽
III [6월] 모의평가		
05회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065쪽
06회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081쪽
07회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097쪽
IV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08회	2023학년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13쪽
V [9월] 모의평가		
09회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129쪽
10회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145쪽
11회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61쪽
VI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2회	2023학년도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77쪽
VII 대학수학능력시험		
13회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93쪽
14회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9쪽
15회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25쪽
● [정답과 해설] ● 책속의 책 ●		

※ 6월·9월 모의평가와 수능은 표기 명칭과 시행 연도가 다릅니다.
예)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는? ➡ 2023년도 6월에 시행!

“강력한 해설로 새롭게 출시된 「2024 리얼 오리지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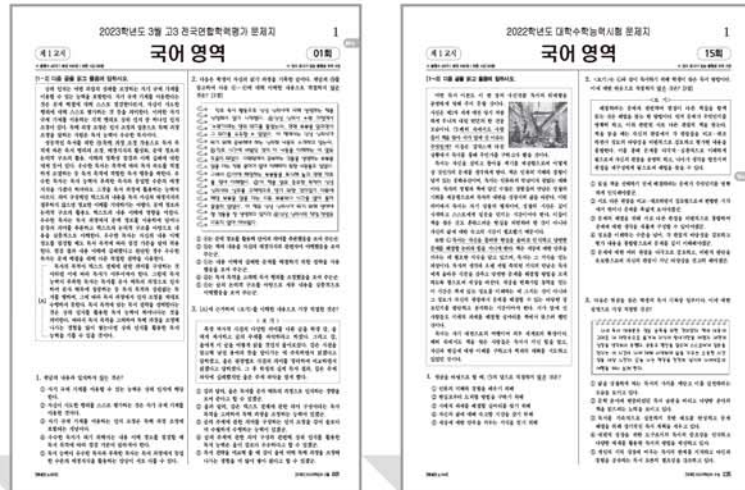
혼자서도 학습이 충분하도록 왜 오답과 정답인지 확실히 알려주며, 문제 해결 끝~팁까지 입체적인 해설로 전면 보강했습니다.

★ 모의고사를 실천과 똑같이 풀어보면
내 실력과 점수는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01
실제 시험지와 똑같은 문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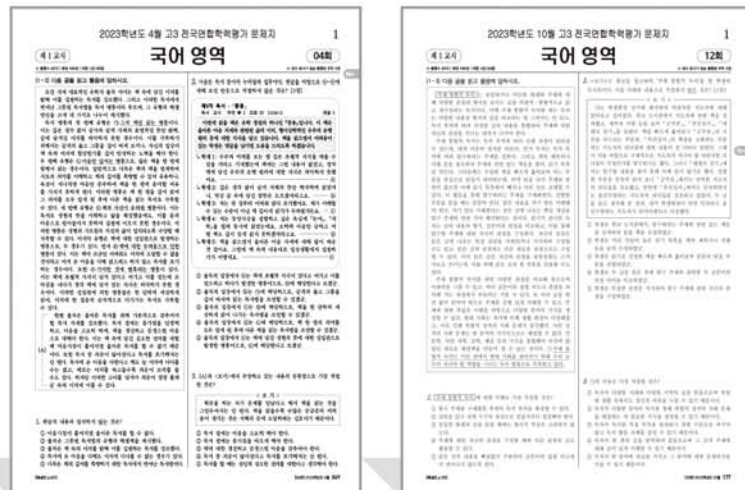
고3 국어 수능기출 학력평가 Light는 총 15회분의 문제가 수록되어 있으며, 실전과 동일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 1 리얼 오리지널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지의 크기와 느낌을 그대로 실려 실전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문제를 풀어 볼 수 있습니다.
- 2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학습 체크표에 학습 날짜와 시간을 기록 하고, [80분] 타이머를 작동해 실천처럼 풀어 보십시오.

02
2025 수능 + 학력평가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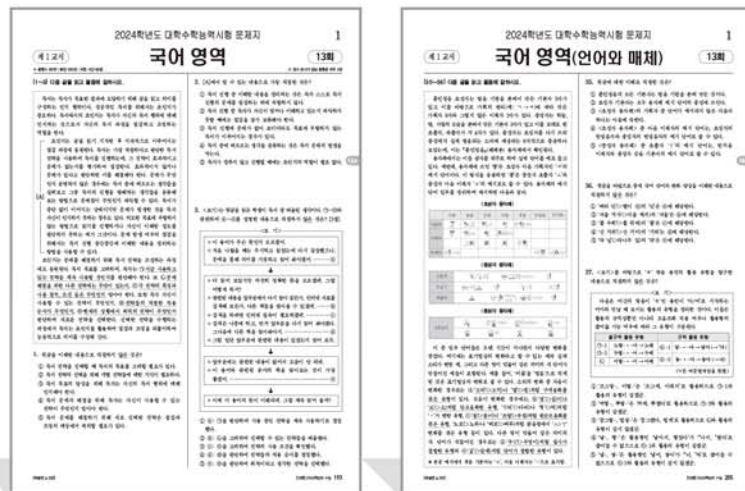
2025학년도 수능시험과 연 4회 [3월·4월·7월·10월] 시행 되는 학력평가를 대비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 1 2025 수능을 대비해 2024 불수능을 포함한 최신 3개년 수능 기출 문제는 반드시 필수로 풀어 봐야합니다.
- 2 월별로 시행되는 학력평가를 대비해 6회분 문제를 풀어 보면 수능 시험에서도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03
공통 + 선택(언어와 매체)만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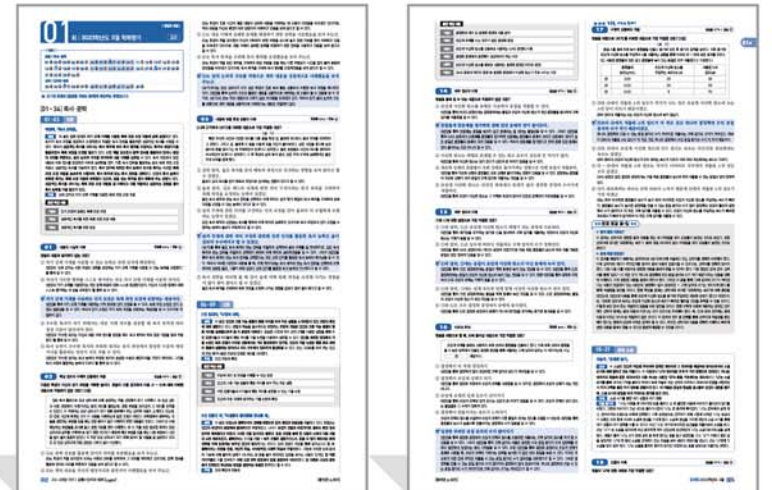
신수능 체제와 동일하게 공통+선택(언어와 매체) 과목을 수록했으며, 선택 과목별로 발간을 했습니다.

- 1 수능 국어에서 내가 선택한 과목만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목의 색선택로 집중 학습이 가능합니다.
- 2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내용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선택한 과목만 학습할 수 있어 효율이 높습니다.

04
입체적 해설 & 문제 해결 꿀 팁

혼자서도 학습이 충분하도록 자세한 [입체적 해설]과 함께 고난도 문제는 문제 해결 끝~팁까지 수록을 했습니다.

- 1 선지에 왜, 정답인지? 왜, 오답인지? 입체적으로 자세한 해설을 수록해 답답함이 없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 2 국어에서 등급을 가르는 고난도 문제는 많이 틀린 이유와 함께 문제 해결 끝 팁까지 명쾌한 해설을 수록했습니다.

05
SPEED 정답 체크 표 + 등급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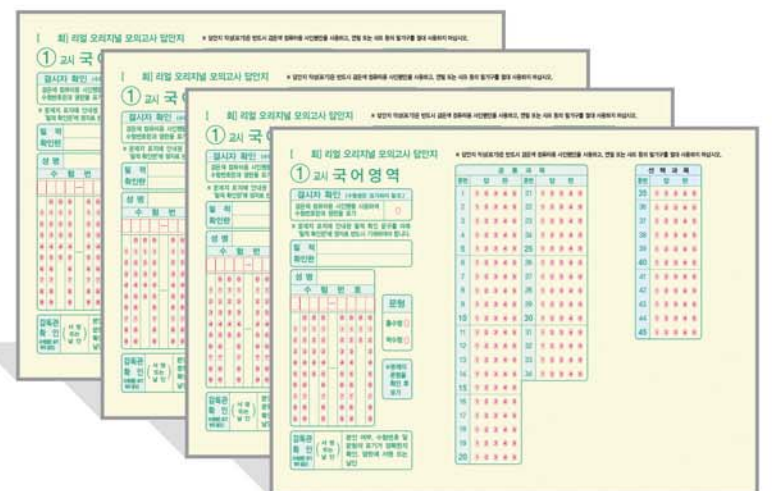
빠르게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 정답 체크 표와 문제를 풀 후 등급을 확인 할 수 있는 등급 컷을 제공합니다.

- 1 회차별로 문제를 풀 후 빠르게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 SPEED 정답 체크 표를 제공하며, 어려서 책갈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문제를 풀 후 바로 자신의 실력과 모의고사에서 상대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급 컷을 제공합니다.

06
실전과 동일한 OMR 체크카드

정답 마킹을 위한 OMR 체크카드는 실전력을 높여주며 부록 형태로 모의고사 문제판 뒷부분에 수록되었습니다.

- 1 OMR 체크카드는 실전과 동일한 형태로 제공되며, 모의고사에서 마킹 연습은 또 하나의 실전 연습입니다.
- 2 답을 밀려 썼을 때 교체하는 연습도 중요하며, 추가로 OMR 체크 카드가 필요하면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문제를 풀기 전 먼저 <학습 체크표>에 학습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세요.
- ② 회분별 기출 문제는 영역별로 정해진 시간 안에 푸는 습관을 기르세요.
- ③ 정답 확인 후 점수와 등급을 적고 성적 변화를 체크하면서 학습 계획을 세우세요.
- ④ 리얼 오리지널은 실제 수능 시험과 똑같이 학습하는 교재이므로 실전을 연습하는 것처럼 문제를 풀어 보세요.

● 국어영역 | 시험 개요

문항 수	문항당 배점	문항별 점수 표기	원점수 만점	시험 시간	문항 형태
45문항	2점, 3점	•3점 문항에 점수 표시 •점수 표시 없는 문항 모두 2점	100점	80분	5지 선다형

● 국어영역(공통+언어와 매체) | 등급 컷 원점수

회분	학습 날짜	학습 시간	틀린 문제	채점 결과		등급 컷 원점수							
				점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01회 2023학년도 3월	월 일	시 분 ~ 시 분				87	79	71	61	49	38	28	19
02회 2022학년도 3월	월 일	시 분 ~ 시 분				88	80	72	61	49	37	26	18
03회 2021학년도 3월	월 일	시 분 ~ 시 분				89	81	72	63	51	38	23	16
04회 2023학년도 4월	월 일	시 분 ~ 시 분				93	85	78	67	55	39	25	17
05회 2024학년도 6월	월 일	시 분 ~ 시 분				93	87	79	69	57	44	27	18
06회 2023학년도 6월	월 일	시 분 ~ 시 분				83	75	67	57	45	33	22	16
07회 2022학년도 6월	월 일	시 분 ~ 시 분				85	78	70	61	48	35	23	18
08회 2023학년도 7월	월 일	시 분 ~ 시 분				89	82	73	60	44	29	21	13
09회 2024학년도 9월	월 일	시 분 ~ 시 분				88	81	73	65	55	43	27	17
10회 2023학년도 9월	월 일	시 분 ~ 시 분				88	81	75	66	54	40	25	17
11회 2022학년도 9월	월 일	시 분 ~ 시 분				96	93	87	79	68	51	26	15
12회 2023학년도 10월	월 일	시 분 ~ 시 분				97	92	84	71	55	31	21	17
13회 2024학년도 수능	월 일	시 분 ~ 시 분				85	77	69	59	49	35	24	16
14회 2023학년도 수능	월 일	시 분 ~ 시 분				89	83	76	68	57	43	29	20
15회 2022학년도 수능	월 일	시 분 ~ 시 분				82	75	67	58	48	35	24	17

※ 등급 컷 원점수는 추정치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학습 참고용으로 활용하십시오.

SPEED 정답 체크 활용 안내



정답을 빨리 확인하고 채점할 수 있도록 <SPEED 정답 체크>를 제공합니다.

- ① 문제집에서 책속의 책 <정답과 해설>을 분리하세요.
- ② 뒷장 속표지 앞면에 <SPEED 정답 체크>가 있습니다.
- ③ 절취선을 따라 자른 후 정답 확인할 때 사용하고, 책갈피처럼 사용하시면 분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 1 교시

● 문항수 45개 | 배점 100점 | 제한 시간 80분

국어 영역

01회

●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상위 인지는 어떤 과업의 성취를 보장하는 자기 규제 기제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자기 규제 기제를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에 대해 스스로 점검한다든지, 자신이 시도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 규제 기제를 이용하는 지적 행위로 상위 인지 중 하나인 인지 조절이 있다. 독해 과정 조절은 인지 조절의 일종으로 독해 과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독서 능력이 우수한 독자이다.

성공적인 독서를 위한 ㉠ 독해 과정 조절 작용으로 독서 목적에 따른 독서 행위의 조정, 배경지식의 활성화, 문맥 정보와 논리적 구조의 활용, 이해의 정확성 점검과 이해 실패에 대한 대처 등이 있다. 우수한 독자는 목적에 따라 독서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등 독서 목적에 적합한 독서 행동을 취한다. 우수한 독자는 독서 능력이 부족한 독자와 동일한 수준의 배경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독서 과정에 활용하는 능력이 다르다. 의미 구성체인 텍스트의 내용을 독자 자신의 배경지식과 결부하지 않으면 정교한 이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문맥 정보와 논리적 구조의 활용도 텍스트의 내용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 우수한 독자는 독서 과정에서 문맥 정보를 이용하여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추론하고 텍스트의 논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우수한 독자는 자신의 내용 이해 정도를 점검할 때도 독서 목적에 따라 점검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점검 결과 내용 이해에 실패했다고 판단한 경우 우수한 독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적절한 전략을 사용한다.

[A] 독서의 목적이 텍스트 전체에 관한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라 독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독서 능력이 부족한 독자는 독서를 문자 해독의 과정으로 인식하여 문자 해독에 집중하는 등 독서 목적과 상관없는 독서를 행하며, 그에 따라 독서 과정에서 인지 조절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독서 목적에 맞는 독서 전략을 선택한다는 것은 상위 인지를 활용한 독서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독해 과정을 조정해 나가는 경험을 많이 쌓는다면 상위 인지를 활용한 독서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2. 다음은 학생이 자신의 읽기 과정을 기록한 글이다. 윗글의 ㉠을 참고하여 다음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진로 독서 활동으로 임상 심리사에 대해 설명하는 책을 선정해서 읽기 시작했다. ㉡ 임상 심리사 수련 과정에서 '수련'이라는 말의 의미를 몰랐는데, 관련 부분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었다. 이 책에서는 임상 심리사가 되기 위해 공부해야 하는 심리학 내용도 소개하고 있는데, ㉢ 진로 시간에 배웠던 것이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부분을 읽을 때는 전문 용어가 많아 이해하지 못한 내용들도 있었다. 그래서 ㉣ 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표시해 놓고 관련 자료를 찾아 이해했다. ㉤ 이 책을 읽은 중요한 목적이 임상 심리사의 실무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읽을 때는 다른 부분보다 시간을 많이 들여 꼼꼼히 읽었다. 이 책은 임상 심리사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지만 ㉥ 임상 심리사의 직업 전망은 다루지 않아 아쉬웠다.

- ① ㉡는 문맥 정보를 활용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했음을 보여 주는군.
- ② ㉢는 책의 내용을 자신의 배경지식과 관련지어 이해했음을 보여 주는군.
- ③ ㉣는 내용 이해에 실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했음을 보여 주는군.
- ④ ㉤는 독서 목적을 고려해 독서 행위를 조정했음을 보여 주는군.
- ⑤ ㉥는 글의 논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했음을 보여 주는군.

3. [A]에 근거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특정 역사적 사건의 다양한 의미를 다룬 글을 학생 갑, 을에게 제시하고 글의 주제를 파악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갑, 을에게 이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물어보았다. 갑은 사건을 참고해 낯선 용어의 뜻을 알아가는 데 주목하면서 읽겠다고 답하였고, 을은 관점별로 사건의 의미를 정리하여 비교하면서 읽겠다고 답하였다. 그 후 학생의 실제 독서 결과, 갑은 주제 파악에 실패했지만 을은 주제 파악을 쉽게 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자기 규제 기제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은 상위 인지에 해당한다.
- ② 자신이 시도한 행위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자기 규제 기제를 이용한 것이다.
- ③ 자기 규제 기제를 이용하는 인지 조절은 독해 과정 조절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 ④ 우수한 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용 이해 정도를 점검할 때 독서 목적에 따라 점검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 ⑤ 독서 능력이 우수한 독자와 부족한 독자는 독서 과정에서 동일한 수준의 배경지식을 활용하는 양상이 서로 다를 수 있다.

- ① 갑과 달리, 을은 독서를 문자 해독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을과 달리, 갑은 텍스트 전체에 관한 의미 구성이라는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독해 과정을 조정하는 능력이 있겠군.
- ③ 글의 주제에 관한 의미를 구성하는 인지 조절을 갑이 을보다 더 수월하게 수행하는 능력이 있겠군.
- ④ 글의 주제에 관한 의미 구성과 관련해 상위 인지를 활용한 독서 능력은 을이 갑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독서 전략을 비교해 볼 때 갑이 을에 비해 독해 과정을 조정해 나가는 경험을 더 많이 쌓아 왔다고 할 수 있겠군.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모방이란 새로운 행동이나 선천적이지 않은 행동을 관찰하여 행동 그 자체를 복제한다는 의미인데, 관찰과 학습을 [A]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이러한 모방의 개념은 인간과 고등 지능 동물의 행동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범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이를 따라 하게 한 실험이 있다. 동일한 구조의 플라스틱 먹이 상자 2개를 이용하는데, 2개의 상자 차이는 내부가 투명하게 보이느냐 여부뿐이다. 각 상자의 위와 아래는 칸막이로 막혀 있다. 각 상자의 아래 칸에는 먹이와 먹이를 빼낼 수 있는 문이 있고, 위 칸에는 구멍만 뚫려 있다.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은 상자의 위를 막대로 톡톡 친 뒤 구멍에 막대를 한 번 집어넣는 시범자를 관찰한다. 이어서 아래 칸의 문을 열고 막대기를 ㉠ 이용해서 먹이를 빼내는 시범자의 행동을 관찰한다. 어린 침팬지들은 불투명 상자의 경우 시범을 잘 따라 한 반면 투명 상자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 먹이를 얻으려면 아래 칸만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듯이 불필요한 행동을 알아서 제거한 뒤 먹이를 ㉡ 획득했다. 그런데 아이들은 상자가 불투명하든 투명하든 시범자의 행동을 따라 했다.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의 이러한 차이를 신경 과학 차원의 거울 뉴런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거울 뉴런은 신경 세포의 일종으로 다른 행위자의 행동을 관찰하기만 해도 자신이 그 행동을 직접 할 때와 동일한 활성화를 보인다. 실험에 따르면 ‘행동에 대한 관찰’, ‘관찰을 포함하지 않은 행동의 실행’ 그리고 ‘모방’에서 거울 뉴런의 활성화 정도가 ㉢ 상이하다. 거울 뉴런은 ‘행동에 대한 관찰’보다 ‘관찰을 포함하지 않은 행동의 실행’에서 더 많은 활성화가 일어났고, ‘모방’에서 가장 높은 활성화를 보였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 목표가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는 거울 뉴런의 활성화가 영양류 모두에게서 일어난다. 반면 목표 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간을 제외한 영양류의 거울 뉴런은 거의 활성화되지 않는다. 즉 투명 상자의 위 칸과 관련된 행동의 목표를 관찰하지 못하여 해당 행동을 따라 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의 거울 뉴런은 행동 목표 외에도 행동이 실행되는 방식이나 의도 모두에서 정교하게 활성화될 수 있다.

인간의 거울 뉴런은 뇌의 다른 부분과 함께 작용하여 모방의 수준을 높인다. ㉣ 거울 뉴런이 인간의 모방 과정에 관여한다고 보면, 인간은 있는 그대로를 따라 하는 모방 메커니즘을 통해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까지도 정확히 모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인간과 고등 지능 동물의 이러한 차이는 모방의 진정한 의미를 시사한다.

(나)
도킨스는 인간 개체의 경쟁이나 협동, 희생이 자신의 복사본을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한 유전자의 전략이라고 설명하며 인간은 유전자의 운반체에 ㉤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유전자 전달과 마찬가지로 문화도 특정 정보 단위로 복제된다고 하면서 그러한 것을 밈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했다.

도킨스에 의하면 밈이란 유전과는 구별되는, 문화와 관련된 복제의 기본 단위이다. 사후 세계와 같은 관념, 패션 등은 한 인간에서 다른 인간에게로 복제되는 밈의 사례이다. 유전자가 정자나 난자를 통해 하나의 신체에서 다른 하나의 신체로 퍼뜨려지는 것과 유사하게, 밈도 모방의 과정을 통해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퍼뜨려진다. 블랙모어는 이것을 기생-숙주 모델로 설명한다. 바이러스가 숙주에 기생해 복제를 ㉥ 반복하여 자기 존재를 확장하고 인근의 숙주들을 전염시키듯이 밈에게는 밈을 더 많이 퍼뜨리는 복제 전략을 위해 숙주인 인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면 자기 자신의 복사본을 더 많이 퍼뜨리려는 행동적 측면을 고려할 때 유전자와 밈이 복제자이자 행위자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간 개체가 행위자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다.

밈의 전달이 모방을 통해 일어난다고 할 때, 블랙모어는 모방을 ‘전염’, ‘개인적 학습’,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과 구별한다. 하품하는 사람을 보면 덩달아 하품할 때가 있다. 이러한 전염은 배우지 않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선천적 행동이기 때문에 남을 따라 하긴 하지만 모방이 아니다. 개인적 학습은 개체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특정 반응이나 행동을 하는 것인데, 관찰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방이 아니다.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은 주어진 자극에 따른 반응이 적절한 보상이 되어 그 자극이 강화되는 것이다.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에서는 다른 개체에 대한 관찰을 통해 특정 행동을 학습하지만 학습의 대상이 행동 자체가 아니다. 자극에 따른 반응이 적절한 보상을 받는 환경에 대해 학습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모방이 아니다.

밈은 물리적 실체가 아니므로 구체적 단위를 설정하기 어렵고, 복제 원리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 밈의 존재나 기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 밈 이론 지지자들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신경 과학 관점에서 밈을 설명하려 한다. 밈은 모방에 의해 뇌에서 뇌로 전달되므로 인간 뇌의 특정 신경 세포 다발이 연결되어 밈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라면 모방 능력이 밈을 촉발시켰고 그 밈은 다시 모방 능력을 발달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밈의 관점에서 문화 전달을 설명하려는 밈 이론은 사상과 문화 등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거울 뉴런에 초점을 맞춰 뉴런의 기원을, (나)는 문화에 초점을 맞춰 밈의 기원을 규명하였다.
- ② (가)는 모방의 과정을 바탕으로 거울 뉴런의 기능을, (나)는 유전자 전달을 중심으로 유전의 특징을 소개하였다.
- ③ (가)는 사례의 일반화를 통해 모방의 분류 기준을, (나)는 사례의 유형화를 통해 밈이 확산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 ④ (가)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 모방의 특징을, (나)는 학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밈의 특징과 유용성을 서술하였다.
- ⑤ (가)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통해 모방의 특성을, (나)는 밈과 유전의 차이를 통해 유전자 복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5.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실험에서 어린 침팬지가 행동 목표를 관찰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 ② (가) : 아이들의 거울 뉴런은 어린 침팬지들의 거울 뉴런과 달리 행동이 실행되는 방식을 모방할 수 없을 것이다.
- ③ (가) : 거울 뉴런의 활성화가 모방에서 가장 높은 이유는 행동에 대한 관찰과 행동의 실행이 모두 충족되기 때문이다.
- ④ (나) : 도킨스는 비유전적 방식으로 전개되는 문화의 전승을 밈으로 설명한다.
- ⑤ (나) : 블랙모어의 기생-숙주 모델에서는 밈이 전달될 때 인간은 밈의 숙주라고 본다.

6. [A]와 [B]를 연결 지어 <보기>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어느 지역 사육사들이 원숭이들에게 밭에서 캔 고구마를 모래밭에 매일 던져 주었고, 흙과 모래가 묻은 고구마를 원숭이들은 그냥 먹었다. 어느 날 ‘미미’라 불리는 젊은 원숭이가 그런 고구마를 물가로 가져가 씻어 먹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행동을 미미의 친척 원숭이들이 따라 하기 시작하더니 두 세대 만에 그 지역 대부분의 원숭이들이 고구마 씻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미가 고구마를 물로 씻어 먹는 것을 관찰한 다른 원숭이들이 자신에게도 고구마가 주어졌을 때 물가에 가서 씻어 먹는 것은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① 원숭이가 고구마를 물로 씻는 행동을 선천적으로 할 줄 안다면 새로운 행동을 배운 것은 아니겠군.
- ② 미미가 혼자서 고구마를 물가에서 씻어 먹는 것을 즐겼다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여 특정 행동을 학습한 것이겠군.
- ③ 관찰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는 환경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 미미의 친척 원숭이들이 미미를 따라 행동하게 되었겠군.
- ④ 물로 씻어 먹기 좋게 된 고구마가 보상으로 작용해 두 세대 만에 그 지역 대부분의 원숭이들이 고구마 씻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겠군.
- ⑤ 미미를 관찰하여 흙과 모래가 묻은 고구마가 있으면 물로 씻어 먹는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 원숭이는 미미를 모방하여 고구마를 물로 씻는 행동 자체를 배운 것이겠군.

7. (나)의 밈 이론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자손 갖기를 거부하는 독신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하나의 밈으로 번지고 있다. 이 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은 자손을 통해 유전자를 전달하지 않는다.

- ① 독신주의 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람은 밈의 복제자이자 행위자이다.
- ② 밈은 자손 갖기를 거부하는 독신주의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 ③ 밈은 유전자 전달과 마찬가지로 복제될 수 있으므로 독신주의 밈이 자손에게 유전된다.
- ④ 자손을 통해 유전자를 전달하려는 유전자의 전략과 자손 갖기를 거부하는 독신주의 밈의 전략은 충돌할 수 있다.
- ⑤ 현대 사회에서 독신주의 밈이 널리 퍼지는 이유는 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수록 유전자 전달이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8. ㉠에 근거하여 ㉡이 ㉢을 반박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밈은 거울 뉴런 활성화를 통해 설명될 수 있으므로 물리적 실체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 ② 거울 뉴런이 인간의 주체적 의지로 활성화되므로 밈은 문화 전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③ 모방에 의해 전파되는 밈의 복제 원리가 불명확하더라도 밈은 문화 확산을 설명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 ④ 거울 뉴런의 활성화가 영양류에서 폭넓게 관찰되기 때문에 밈은 인간 외 영양류에서도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거울 뉴런은 관찰 없이 활성화되므로 인간 뇌에서 뇌로 건너다닐 수 있다는 것을 밈의 복제 원리로 제시할 수 있다.

9. 문맥상 ㉣ ~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써서
- ② ㉤ : 얻었다
- ③ ㉥ : 서로 다르다
- ④ ㉣ : 이르지 못한다고
- ⑤ ㉥ : 거듭하여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건에 대해 지배력을 갖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는데, 점유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그에 해당한다. 물건 중에서도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동산보다 값비싼 재산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거래는 신중할 수밖에 없어 절차를 다소 번거롭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를 할 때 보통 매수인은 매매 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관행상 계약금은 위약금의 역할도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매수인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서, 매도인이라면 그 두 배를 물어 주고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남은 90%의 대금 중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데, 이 대금을 중도금이라고 한다.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제하지 못한다. 이후 남은 대금인 잔금까지 건네면 매매대금의 지급은 마무리되며 그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등기필증을 비롯한 관련 서류를 건네받는다. 이로써 매매계약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후 [등기]를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정보는 법률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되는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등기라고 한다. 부동산 물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로 사회 일반에 공개하여 게시한다. 등기부의 편성은 소유자가 아니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며, 한 물건에 대하여는 한 개의 등기 기록만 두도록 한다. 원칙적으로 한 물건에서 그 일부나 구성 부분에 따로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고, 몇 개의 물건을 포괄하는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될 수도 없다. 예로 든 아파트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파트에 관해서 하나의 등기부만이 존재하며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아파트의 주소와 건물 상태와 같은 표시 사항이, 갑구에는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의 성립이나 변동 상황이 기재된다. 전세권, 저당권과 같이 소유권이 아닌 물권들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들은 을구에 기재된다.

이러한 등기상의 공시를 신뢰하여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는 진정한 권리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매를 통해 소유권자가 바뀌는 것과 같이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를 기입등기라고 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완료된 등기가 신청상의 착오로 말미암아 실제적 법률관계와 불일치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를 경정등기라고 한다. 경정등기에는 부동산이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경정하는 등기가 있을 수 있고, 저당권설정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로 경정하는 것처럼 권리 자체를 경정하는 등기가 있을 수 있다.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다. 등기권리자는 등기부에 새롭게 권리자로 오르게 되는 이를, 등기의무자는 원래 권리자로 기록되었던 이를 가리킨다.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도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흔히 매수인이 등기를 신청한다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등기 신청을 위임받아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등기의 효력을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원칙이 거론된다. 공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 사이에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성립요건주의라 한다. 반면에 계약이 완료되면 당사자 사이에 물권 변동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다만 공시를 갖추지 않았을 때는 제3자에게 물권 변동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원칙은 대항요건주의라 한다. 우리 법제는 등기부에 명의가 기재되었을 때 그 부동산의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0.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소유권과 같은 물권은 물건에 대해 지배력을 갖는 권리이다.
- ② 부동산에 관한 점유권, 소유권과 같은 사항은 등기부의 을구에 기재된다.
- ③ 등기부의 편성은 진정한 권리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권리자를 중심으로 한다.
- ④ 등기부는 관련된 당사자만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정보를 보호한다.
- ⑤ 하나의 물건에 성립한 여러 물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물건에 대한 복수의 표제부가 붙을 수 있다.

1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매수인은 매도인의 등기 신청을 위임받을 수 있다.
- ② 매수인은 등기의무자이기 때문에 매도인과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매수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명의인 변경을 위해 신청하려는 등기는 기입등기이다.
- ④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매도인은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건네주어야 한다.
- ⑤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2.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대항요건주의는 등기가 소유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이 되지 않는 원칙이다.
- ② 등기는 물건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물권에 관한 사항을 공시한다.
- ③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의해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기입등기에 해당한다.
- ④ 신청상의 착오로 일치하지 않는 등기의 기재가 있으면 경정 등기를 신청하여 바로잡을 수 있다.
- ⑤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한 우리 법제에서는 계약의 완료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 절차는 필수적이다.

13. ㉡의 문맥적 의미와 유사하게 쓰인 것은?

- ①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이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 ② 우리 교향악단은 최정상급의 연주자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 ③ 이곳은 백삼십여 호로 이루어진 마을입니다.
- ④ 민회는 기호와의 사랑이 이루어져 행복했다.
- 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니 기분이 좋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해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으로, 보통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이다. 혼합물의 과포화 상태는 용질이 용해도 이상으로 녹아 있는 상태인데, 과포화 상태의 혼합물은 포화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결정화는 포화 상태의 혼합물이 과포화 상태가 되어 용질이 고체 입자로 석출되는 것으로 결정화 공정을 거치면 입도*가 작은 고체 입자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결정화 공정은 약물의 생체 흡수율을 높여야 하는 제약 분야 등에서 사용된다.

결정화 공정에서는 초임계 유체를 쓰는 경우가 많다. 물질은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이상에서 초임계 상태로 존재한다. 임계 온도는 어떤 물질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고 온도이고, 임계 압력은 어떤 물질이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대 압력이다. 온도와 압력이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이상일 때 물질은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초임계 상태로 존재한다. 초임계 상태에서 물질의 분자 간 거리는 그 물질이 기체일 때보다는 가깝지만 액체일 때만큼 가깝지는 않다. 물질이 액체일 때보다는 초임계 상태거나 기체일 때 용질이나 용매가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초임계 유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높이면 밀도가 높아져 더 많은 양의 용질을 녹일 수 있어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결정화 공정에서는 고체 입자의 입도를 조절할 수 있다.

GAS 공정에서는 초임계 이산화 탄소를 반응매로 사용하여 ㉠혼합물에 녹아 있는 용질을 작은 입도의 고체로 석출하는 경우가 많다. 반응매는 용질을 녹이지 않고 용매와는 잘 섞이는 물질로, 반응매를 혼합물에 첨가하면 반응매는 용매와 섞이고 용질은 고체 입자로 석출된다. GAS 공정에서는 결정화하려는 물질을 액체 용매에 녹여서 혼합물을 만들고 용기에 적당량 채운 뒤 용기를 밀폐한다. 이후 용기의 온도와 압력을 이산화 탄소와 액체 용매의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의 사이에 맞추고 초임계 이산화 탄소를 용기에 주입한다. 그러면 혼합물이 과포화 상태가 되고 녹아 있던 용질은 고체 입자로 석출된다. 반응매가 용매와 섞이면서 포화될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다.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처음에 채운 혼합물의 양이 같다면 그 농도에 의해 정해진다.

결정화 공정에서 고체 입자를 석출할 때는 우선 일정한 수의 용질 분자가 모여서 집합체를 이루어 결정핵이 생성되어야 한다. 혼합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결정핵을 만들 수 있는 용질 분자의 수가 많아 결정핵이 많이 생긴다. 결정핵이 많이 생성되면 하나의 결정핵에 모일 수 있는 용질 분자의 수가 적어져서 고체 입자의 크기는 작아지게 된다.

한편 초임계 이산화 탄소를 용매로 사용하는 결정화 공정도 있다. RESS 공정에서는 결정화하려는 물질과 초임계 이산화 탄소가 섞인 ㉡혼합물을 고압의 용기에서 대기압을 유지하는 용기로 분사한다. 분사 직후 초임계 이산화 탄소는 빠르게 압력이 내려가고 기체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용질이 고체 입자로 석출된다. 이때 혼합물에서 결정핵이 생성되는데,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입도가 정해지는 원리는 GAS 공정과 동일하다.

GAS 공정과 RESS 공정 등의 결정화 공정에서는 이산화 탄소가 주로 쓰인다. 이산화 탄소는 임계 온도가 상온과 큰 차이가 없어 온도를 조금만 올리고 압력을 올리면 쉽게 초임계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초임계 이산화 탄소를 이용하면 압력을 조절하여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입도를 작게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독성이 없어서 안전성 문제에서도 자유롭다.

* 입도: 입자 하나하나의 평균 지름.

1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임계 이산화 탄소를 용매로 사용하여 용질을 석출할 수 있다.
- ② 혼합물에 반응매를 첨가하면 원래 있던 용매의 양이 줄어든다.
- ③ 이산화 탄소는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고 온도가 상온과 큰 차이가 없다.
- ④ 과포화 상태의 혼합물이 포화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으로 인해 용질이 석출된다.
- ⑤ 초임계 이산화 탄소는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어 결정화 공정에 쓰이기에 적합하다.

1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은 초임계 이산화 탄소가 액체가 되는 과정에 사용된다.
- ② ㉠과 달리, ㉡은 농도에 따라서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수가 정해진다.
- ③ ㉡과 달리, ㉠에는 용질이 초임계 이산화 탄소가 아닌 용매에 녹아 있다.
- ④ ㉡과 달리, ㉠에는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이상의 이산화 탄소가 섞여 있다.
- ⑤ ㉠과 ㉡은 모두 결정화 공정에서 용매에 분사된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초임계 유체를 용매로 사용하여 포화 상태의 혼합물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포화 상태의 혼합물을 더 높은 압력에서 만들면 결정화 공정을 통해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입도는 더 작아지는데, 이는 ㉢ 때문이다.

- ① 결정핵이 더 적게 생성되기
- ② 결정핵이 초임계 상태가 되기
- ③ 초임계 유체의 임계 온도가 낮아지기
- ④ 결정핵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느려지기
- ⑤ 일정한 부피당 용질 분자의 수가 많아지기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용질 A를 용매 B에 녹여 혼합물을 만들고 용기에 담은 후 용기의 압력을 높였다. 이후 용기에 초임계 이산화 탄소를 주입하여 A를 석출하는 실험을 통해 아래의 ㉠~㉣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단, 사용된 혼합물의 양은 같고 혼합물에 녹아 있는 용질은 모두 석출된다고 가정한다.)

	혼합물의 농도(g/mL)	초임계 이산화 탄소를 주입하는 속도(mL/s)	석출된 A의 입도(μm)
㉠	0.01	20	35
㉡	0.03	20	25
㉢	0.03	5	70

- ① ㉠과 ㉢에서 석출된 A의 입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초임계 이산화 탄소에 녹는 A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겠군.
- ② ㉠보다 ㉢에서 석출된 A의 입도가 더 작은 것은 하나의 결정핵에 모인 용질 분자의 수가 적기 때문이겠군.
- ③ ㉢와 ㉣에서 초임계 이산화 탄소와 B가 섞이는 속도는 다르지만 과포화되는 속도는 같겠군.
- ④ ㉠~㉣에서 석출된 A의 입도는 차이가 나더라도 각각에서 석출된 A의 양은 모두 같겠군.
- ⑤ ㉢가 과포화되는 속도는 ㉠과 ㉡보다 느리기 때문에 ㉢에서 석출된 A의 입도가 가장 작겠군.

확신의 원천은 욕망이었다. 달콤하고 시원한 얼음과자를 입에 넣고 빨아먹고 싶은 너무 큰 욕망이 염려와 불안을 잠재웠다. 그러나 얼음과자의 부피가 줄어들고 숨어 있던 막대가 드러나면서 염려와 불안은 서서히 깨어났다. 그렇게 단단하던 확신은 어느 순간 얼음과자 녹듯 녹아 흘렀다. 아버지가 천 원짜리 한 장 없어진 걸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다는 쪽으로 생각이 급격히 기울었다. 안도의 구실이 되어 주었던 다섯 장이라는 지폐의 숫자도 다르게 해석되었다. ① 천 원짜리가 고작 다섯 장밖에 없었지 않은가. 다섯 장 가운데 한 장 없어진 걸 어떻게 모른단 말인가. 아버지가 그렇게 주의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 않은가. 얼음이 녹아 손등으로 흐르고 얼음 속에 숨어 있던 동그란 막대가 거의 다 드러날 즈음 얼음과자는 내 입 안에서 다만 얼얼할 뿐 더 이상 아무 맛도 내지 않았다. 잊고 있었던 두려움이 서서히 몰려왔다. 막대를 빨고 있는 내 모습을 본 친척 누나가 돈이 어디서 나서 그걸 사 먹느냐고 물었을 때 내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누나는 고자질을 할 것이다. 아버지가 지갑의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 손에 들고 있는 얼음과자의 막대가 몽둥이처럼 여겨져서 나는 얼른 길바닥에 버렸다.

그러자 이내 학교 선생님과 같은 반 친구에게 품었던 것과 같은 바람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났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 그 바람은 거의 무의식적인 것이었다. 나는 내가 무얼 원하는지도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 그저 종아리와 엉덩이에 떨어질 몽둥이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마음속의 바람이 하필이면 그때 이루어졌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돌아오긴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야단칠 수 없는 몸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타고 있던 이웃 어른의 트럭이 언덕 아래로 굴렀다고 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운전을 한 이웃 역시 취한 상태였다. 아버지가 취한 것은 괜찮지만, 운전자가 취한 것은 괜찮지 않았다. 병원에 옮겨진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 일주일을 살았다. 그리고 천원의 행방을 따지지 않고, 따질 수도 없는 곳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아버지의 죽음으로 충격에 빠진 ‘나’는 큰덕에서 살게 되고,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대학에 진학했다. 이후 방위병으로 근무하기 위해 고향에 내려온 ‘나’는 동갑내기 사촌인 규와 함께 지내며 소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내 신경의 어떤 부분을 건드린 것은 소설 속의 소설가, 나아가 그 소설을 쓴 소설가가 그 지루하고 장황한 자기변명을 끈질기게 되풀이함으로써 얻어 내려 하고 있는, 마침내 얻어 냈을 효과였다. 확실하고 또렷하게 그 효과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지만, 그 순간 나는 소설을 왜 쓰는지 온전히 이해했다고 느꼈다. 어떤 의식의 반영이었는지 분명치 않은 채로 나는 문득 그 소설을 한 권의 일기장처럼 인식했다. 아마도 소설가는 따로 일기를 쓰지 않겠구나, 적어도 이 소설가는 따로 일기를 쓸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 여름 한낮 폭우가 쏟아지듯 느닷없이, 그야말로 불쑥 덮쳤다. 폭우는 조금 더 쏟아졌다. 나는 남은 일기장을 버리고 새 일기장을 가지고 싶어졌다. 그것은 매우 당황스러운 충동이었다. 생각해 보지 못한 의외의 열망에 사로잡혀서 나는 무언가를 끼적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소설이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소설이 아니라 일기, ㉢ 새로운 방식의 일기를 쓴다는 의식에 불들려 있었을 뿐이었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여름날 나는 얼음과자를 사 먹기 위해 아버지의 지갑에서 천 원짜리 한 장을 훔쳤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압도적이었다. 천 원짜리가 한 장만 있었다면 몰라도 다섯 장이나 있었다. 다섯 장 가운데 한 장 없어진 걸 어떻게 안단 말인가. 아버지가 그렇게 꼼꼼한 사람은 아니지 않은가. 돈을 빼내고, 얼음과자를 사기 위해 달려가고, 마침내 그 달콤하고 차가운 얼음과자를 입에 넣고 빨 때까지 나의 범 죄가 들통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 단단한

19.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인물의 심리를 추적하고 있다.
- ② 인물이 주목한 다른 인물들의 과오에 대한 평가를 나열하고 있다.
- ③ 인물들 간의 외적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동시적 사건들의 병치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과거의 일에 대한 내적 목소리를 삽입하여 인물 자신의 행위를 조명하고 있다.

2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지갑 속 천 원짜리 다섯 장에 대한 ‘나’의 인식에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 ② ㉡: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후회하며 ‘나’가 두려움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 ③ ㉢: 아버지에 대한 ‘나’의 바람이 오래도록 지녀 왔던 생각임을 알 수 있다.
- ④ ㉣: ‘나’가 글쓰기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 계기가 갑작스러우면서도 강렬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 ‘나’가 소설을 쓰고 있다는 의식 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글을 쓰는 데 몰두하였음을 알 수 있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인간의 내면에 자리한 죄의식은 서사의 출발점이 되고 서사를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 자아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소설 쓰기는 자아의 치부를 드러내려는 욕망과 은폐하려는 욕망의 힘겨루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은 자기 변명을 통해 고백의 부담을 덜면서 자기 정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준다.

- ① ‘나’가 ‘소설을 왜 쓰는지 온전히 이해했다’는 것은, 소설 쓰기가 자기 변명을 통해 자기 정화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나’의 생각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가 ‘새 일기장을 가지고 싶어’진 것은, 담임 선생님, 친구, 아버지와 관련하여 ‘나’가 느끼고 있는 죄의식이 서사의 동력이 되었기 때문이겠군.
- ③ ‘나’가 ‘다시 쓰는 일을 반복’하며 ‘열 번도 더 고쳐 썼다’는 것은, ‘나’가 치열한 자아 성찰을 바탕으로 소설 쓰기를 지속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가 ‘모순에 가득 찬 피투성이의 문장들’을 ‘만들어’ 냈다는 것은, ‘나’의 소설 쓰기가 드러내려는 욕망과 은폐하려는 욕망의 힘겨루기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말해 주는 것이겠군.
- ⑤ ‘나’가 ‘가학적 열망에 불들려’ ‘무엇에 쫓겨 같은 시절’을 보낸 것은, 소설 쓰기가 수반하는 피곤과 수면 부족 등의 육체적 고통이 ‘나’의 고백의 부담을 덜어 주었기 때문이겠군.

나는 우선 숙제를 하지 않은 날 아침, 담임 선생님이 아파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거나 갑작스럽게 전근을 가는 상상을 하는 장면부터 써 나갔다. 학교 앞 가게에서 구슬 몇 개를 훔치는 이야기도 썼다. 우연히 눈이 마주친 같은 반 친구의 눈빛에서 시작된 견잡을 길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도 썼다.

[A]그가 ‘우리 반 반장은 도둑놈이래요’ 하고 떠들고 다니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영사되는 바람에 미칠 것 같았다. 어떤 일인지 그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언제 도둑놈 소리를 듣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불안하고 무서웠다. 나는 그 친구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바라기 시작했다. 아픈든 죽든(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하고 탄식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러나 특별히 내 머릿속에만 악마가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사실 꼭 악마에게 떠넘길 일도 아니다. 나는 어린아이들이 순진하다는 믿음은 어른들이 내놓고 속아 주는 미신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순진하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순진함은 때로, 그것이 악인 줄 모르고, 왜냐하면 순진하니까, 악마를 연기하곤 한다. 악마가 순진함의 외양을 가지고 있든, 순진함이 악마의 내용을 가지고 있든 무슨 차이란 말인가!) 어떻게든 사라져 버리라고 주문을 외기도 했다. 물론 내 바람과 주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밤에 쓰고 아침에 출근했다. 지난밤에 쓴 글을 다음날 밤에 지우고 다시 쓰는 일을 반복했다. 어떤 부분은 열 번도 더 고쳐 썼다. 중간에서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도 했다. 문장은 낮은 포복으로 아주 조금씩 나아갔다. 문장을 쓰는 동안 내 안에서 드러내려는 욕구와 은폐하려는 욕구가 치열하게 싸운다는 걸 나는 알았다. 문장들은 서로 부딪치고 충돌하고 갈등했다. 그 때문에 모순에 가득 찬 피투성이의 문장들이 만들어졌다. 앞에 쓴 문장을 덮기 위해 새로운 문장을 고르는 식의 글쓰기는 진을 빼내는 작업이었다. 나는 피곤과 수면 부족과 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이해할 수 없는 가학적 열망에 불들려 끈기 있게 문장들과 싸웠다. 무엇이 쫓겨 같은 시절이었다.

- 이승우, 「오래된 일기」 -

18. 윗글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제적 형편 때문에 소설가의 꿈을 포기했다.
- ② 어릴 적 친척 누나와 함께 아버지의 돈을 훔치곤 했다.
- ③ 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아버지가 죽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다.
- ④ 학교 앞 가게에서 구슬을 훔치고 난 뒤 불안감에 사로잡혀 지냈다.
- ⑤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를 오랫동안 원망했다.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몰아라 어서 보자 총석정 어서 보자
총석정 종단 말을 일찍이 들었거니
바람 불면 못 보려니 몰아라 어서 보자
벽해 위의 높은 집이 저것이 총석정인가
올라 보니 후면이라 전면으로 보오리라
배 대어라 사공들아 풍량이 일지 않아
층파로 돌아 저어 총석 전면 보게 하라
배 띄워라 굽이마다 따라 저어 불 양이면
영소전 태을궁*을 지으려고 경영턴가
돌기둥 천백 개를 육모로 깎아 내어
개개이 묶어 세워 몇 만 년이 되었던지
황량한 데 벌었으니 배 없어 못 실린가

(중략)

하우씨 도끼뿔이 용문을 뚫었으나
이 돌*을 만났으면 이같이 깎을세며
영장*이 신묘하여 코끝의 것 찌었으나
이 돌을 다듬는다고 이같이 곧을쏘나
어떠한 도끼로 용이히 깎았으며
어떠한 승묵*으로 천연히 끝랐는고
끈 없이 묶었으되 틈 없이 묶었으며
풀 없이 붙었으되 흔적 없이 붙었으니
공력을 이리 들어 무엇에 쓰려 하고
한 묶음씩 두 묶음씩 세운 듯 누인 듯
기괴히 꾸뚾다가 세인의 노리개 되야
시 짓고 노래하여 기리기만 위한 것인가
통천의 총석정과 고성 of 삼일포며
간성의 청간정과 양양의 낙산사며
강릉의 경포대와 삼척의 죽서루며
울진의 망양대와 평해의 월송정은
이 이른 관동팔경 자웅을 의논 말라
천하의 두 총석은 응당 다시 없으려니
물로는 동해수요 피로는 금강산과
폭포로는 구룡이오 돌로는 총석이라
장관을 다한 후의 다시금 혼자 말이
괴외기절* 하온 사람 이같은 이 있다 하면
천 리를 멀다 말고 결단코 찾으리라

— 구강, 「총석곡」 —

- * 태을궁 :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
- * 이 돌: 총석정 주변의 기암괴석.
- * 영장 : 영험한 장인.
- * 승묵 : 먹통에 딸린 실줄.
- * 괴외기절: 빼어나게 뛰어난 인걸.

(나)

㉠ 청산은 에워싸고 녹수는 돌아가고
석양이 거들 때에 신월(新月)이 솟아난다
안전(眼前)에 일존주* 가지고 시름 풀자 하노라 <제1수>

내 말도 남이 마소 남의 말도 내 앉겠네
고산 불고정*이 좋아 늙는 몸이로되
어디서 망령 난 손이 검다 희다 하나니 <제4수>

옛것제 빛은 술이 다만 세 병뿐이로다
한 병은 물에 놓고 또 한 병 띄에 놀며
이밖에 남은 병 가지고 달에 논들 어떠리 <제6수>
— 장복겸, 「고산별곡」 —

- * 일존주: 한 통의 술.
- * 고산 불고정 : 전북 임실에 있는 정자.

(다)

이렇게 맥고모자를 쓰고 삐루*를 마시고 친구를 생각하기는
그대의 언제나 사랑하는 털게에 청포채를 무친 맛나는 안주
탓인데 나는 정말이지 그대도 잘 아는 함경도 함흥 만세교 다리
밑에 님이 오는 털게 맛에 헤가우손이를 치고 사는 사람입네.
하기야 또 내가 친하기로야 가재미가 빠질깁네. 회국수에 들어
일미이고 식해에 들어 절미지. 하기야 또 버들개통구이가 좀
좋은가. 횡대 생성 된장지짐이는 어떻고. 명태골국, 해삼탕, 도
미회, 은어젓이 다 그대 자랑감이지. 그리고 한 가지 그대나
나밖에 모를 것이지만 평메리는 아래 주둥이가 길고 쫘치는
위 주둥이가 길지.

이것은 크게 할 말 아니지만 산뜻한 청삿자리 위에서 전북
회를 놓고 함소주 잔을 거둬하는 맛은 신선 아니면 모를 일이지.

이렇게 맥고모자를 쓰고 삐루를 마시고 전북에 해삼을 생각
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있습네. 칠팔월이면 으레이 오는 노랑
바탕에 꺼먼 등을 단 제주 배 말입네. 제주 배만 오면 그대네
물가엔 말이 많아지지. 제주 배 아즈맹이 몸집이 절구통 같다는
등, 제주 배 아맹인 조밥에 소금만 먹는다는 등, 제주 배 아즈
맹이 언제 어느 모퉁고지 이숙한 바위 뒤에서 혼자 해삼을 따
다가 무슨 일이 있었다는 등…… 참 말이 많지. 제주 배 들면
그대네 마을이 반갑고 제주 배 나면 서운하지. ㉡ 아이들은 제주
배를 물가를 돌아 따르고 나귀는 산등성에서 눈을 들어 따르지.
이번 칠월 그대한테로 가선 제주 배에 올라 제주 색시하고 살
렵네. 내가 이렇게 맥고모자를 쓰고 삐루를 마시고 제주 색시를
생각해도 미역 내음새에 내 마음이 가는 곳이 있습네. 조개껍
질이 나이금*을 먹는 물살에 날날이 키가 자라는 처녀 하나가
나를 무척 생각하는 일과 그대 가까이 송진 내음새 나는 집에
아내를 잃고 슬피 사는 사람 하나가 있는 것과 그리고 그 영
어를 잘하는 총명한 사년생 금이가 그대네 흥원군 흥원면 동
상리에서 난 것도 생각하는 것입네.

— 백석, 「동해」 —

- * 삐루: 맥주.
- * 나이금 : 나이를 나타내는 금.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가)와 (나)는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 ㉡ (가)와 (다)는 직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 ㉢ (나)와 (다)는 명령적 어조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 (가)~(다)는 모두 다른 사람을 부르는 방식으로 바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
- ㉤ (가)~(다)는 모두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01회

제 1 교시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준말은 본말 중 일부가 줄어들어 만들어진 말이다. 한글 맞춤법은 준말과 관련된 여러 규정을 담고 있는데, 그중 제34항에서는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어미 ‘-아/-어, -았-/어-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 것을 다루고 있다. ‘(열매를) 따-+-아→따/*따아’, ‘따-+-았-+-다→따다/*따았다’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하지만 어간 끝 자음이 불규칙적으로 탈락되는 경우에는, 원래 자음이 있었음이 고려되어 ‘ㅏ, ㅑ’가 줄어들지 않는다. ‘(꿀물) 젓-+-어→저어/*저’ 등이 그 예이다. 한편 제34항 [붙임1]에서는 어간 끝 모음 ‘ㅙ, ㅞ’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 것을 다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때는 반드시 준 대로 적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손을) 떼-+-어→떼어/떼’에서 보듯이 본말과 준말 모두로 적을 수 있다. 다만 모음이 줄어들어서 ‘ㅙ’가 된 경우에는 ‘-어’가 결합하더라도 다시 줄어들지는 않는다. 예컨대 ‘차-’와 ‘-이-’의 모음이 줄어든 ‘채-’의 경우 ‘(발에) 채-+-어→채어/*채’에서 보듯이 모음이 다시 줄어들지 않는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모음이 줄어들고 자음만 남는 경우 그 자음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는다는 것도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한 표준어 규정 제14항에서는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음을, 제16항에서는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음을 제시하고 있다. ‘온갖/*온가지’는 전자의 예이고, ‘(일을) 서두르다/서둘다’는 후자의 예이다. 다만 후자에서 용언의 어간이 줄어든 일부 준말의 경우, 준말이 표준어로 인정되더라도 준말의 활용형은 제한되는 예도 있다.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 준말의 활용형이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 준말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두르다’의 준말 ‘서둘다’는 자음 어미 ‘-고, -지’가 결합된 형태의 활용형 ‘서둘고’, ‘서둘지’가 표준어로 인정되지만, 모음 어미 ‘-어, -었-’이 결합된 형태의 활용형 ‘*서둘어’, ‘*서둘었다’는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는 규정에 맞지 않음을 나타냄.

3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발을) 매다’의 어간에 ‘-어’가 결합된 형태인 ‘매어’의 경우, 준말인 ‘매’로 적어도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 ㉡ ‘(병이) 낫-+-아’의 경우, ‘ㅏ’이 불규칙적으로 탈락되므로 ‘나아’로만 적고, ‘나’로 적으면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다.
- ㉢ ‘(땅이) 패다’의 어간에 ‘-어’가 결합될 경우, ‘패다’의 ‘ㅙ’가 모음이 줄어든 형태이므로 ‘패’로 적으면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다.
- ㉣ ‘(잡초를) 베-+-었-+-다’와 ‘(배개를) 베-+-었-+-다’의 경우, 준말의 형태인 ‘뻬다’로 적으면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다.
- ㉤ ‘(강을) 건너-+-어’와 ‘(줄을) 서-+-어’의 경우, ‘ㅑ’로 끝난 어간에 ‘-어’가 어울리므로 본말로 적으면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을 ‘탐구 과정’에 따라 분류할 때, [A]에 들어갈 예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탐구 과정]	
○ 답지를 ㉠ <u>견다</u> (←거두다) ○ 가사를 ㉡ <u>외다</u> (←외우다) ○ 일에 ㉢ <u>서둘다</u> (←서투르다) ○ 집에 ㉣ <u>머물다</u> (←머무르다)	
↓	
모음이 줄어들고 남은 자음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는 준말입니까?	아니요 →
↓ 예	
모음 어미 ‘-어, -었-’이 결합된 형태의 활용형이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 준말입니까?	아니요 →
↓ 예	
[A]	

- ㉠ ㉠, ㉡ ㉡ ㉡, ㉣ ㉢ ㉢, ㉣
- ㉣ ㉠, ㉡, ㉢ ㉤ ㉠, ㉡, ㉣

37. <보기>의 ㄱ~ㄴ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주체 높임은 화자가 문장의 주체, 곧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해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선어말 어미, 조사나 특수한 어휘 등을 통해 실현된다. 그리고 상대 높임은 화자가 청자, 곧 말을 듣는 상대에게 높임이나 낮춤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주로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또한 객체 높임은 화자가 문장의 객체, 곧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해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조사나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된다.	
ㄱ.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가 할머니께 여쭙러 가거라.	
ㄴ. (점원이 손님에게) 제가 손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ㄷ. (동생이 형님에게) 저 기다리지 마시고 형님은 먼저 주무십시오.	

- ㉠ ㄱ에서는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 조사와 특수한 어휘가 사용되었다.
- ㉡ ㄴ에서는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 조사와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 ㉢ ㄱ과 ㄴ에서는 모두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 특수한 어휘가 사용되었다.
- ㉣ ㄴ과 ㄷ에서는 모두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기 위해, 조사와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 ㉤ ㄱ~ㄷ에서는 모두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 특수한 어휘가 사용되었다.

38. <보기>에 제시된 ㉠~㉣의 발음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웃고름[온꼬름] ㉡ 색연필[생년필] ㉢ 꽃망울[꼇망울]
㉣ 벽난로[병날로] ㉤ 버홀이[버홀치]

- ① ㉠: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 음운 변동이 첫째 음절의 종성 위치와 둘째 음절의 초성 위치에서 각각 한 번씩 일어난다.
② ㉡: 첨가된 자음으로 인해 조음 방법이 변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③ ㉢: 첫째 음절의 종성 위치에서 두 번의 음운 변동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④ ㉣: 둘째 음절의 초성 위치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 둘째 음절의 종성 위치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⑤ ㉤: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변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39.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 학습 활동 〉

- ㉠~㉤을 통해 중세 국어의 격 조사가 실현된 양상을 탐구해 보자.
- ㉠ 太子人(태자+人) 버들 사막사 時常 거트(겉+의) 이서
(현대어 풀이: 태자의 벼를 삼으시어 늘 겉에 있어)
㉡ 衆生인(중생+인) 므스물(므+을) 조차
(현대어 풀이: 중생의 마음을 따라)
㉢ 니르고저 홀 배(바+ㅣ) 이서도 므츄내 제 쓰들(뜬+을)
(현대어 풀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 바르래(바를+애) 브르미(브름+이) 자고
(현대어 풀이: 바다에 바람이 자고)
㉤ 그르세(그릇+에) 담고 버미 고기란 도기(독+이) 다마
(현대어 풀이: 그릇에 담고 범의 고기는 독에 담아)

	비교 자료	탐구 결과
①	㉠의 '太子人', ㉡의 '衆生인'	체언이 무정 명사이냐 유정 명사이냐에 따라 관형격 조사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군.
②	㉠의 '거트', ㉤의 '도기'	체언 끝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부사격 조사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군.
③	㉡의 '므스물', ㉢의 '쓰들'	체언 끝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목적격 조사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군.
④	㉢의 '배', ㉣의 '브르미'	체언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 주격 조사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군.
⑤	㉣의 '바르래', ㉤의 '그르세'	체언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 부사격 조사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군.

[40~42] 다음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다음 화제인 쇼트폼(short-form)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자막 기능을 켜 주세요. 쇼트폼은 무엇인가요?
전문가: 쇼트폼은 짧게는 15초에서 60초, ㉠ 길어도 최대 10분을 넘지 않는 짧은 영상 콘텐츠를 말합니다. 쇼트폼을 하나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진행자: (시청 후) 현재 기준으로 무려 조회 수가 100만 회 가까이 되는데, ㉡ 지금도 조회 수가 올라가고 있군요. 이렇게 쇼트폼이 인기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문가: ㉢ 쇼트폼은 짧고 재미있고 부담이 없습니다. 그게 이유지요. 이는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소비하려는 현대인의 성향에 잘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실시간 채팅'에 '셋별' 님이 '1분짜리 요리 과정 영상을 자주 보는데, 이것도 쇼트폼인가요?'라는 질문을 방금 올려 주셨네요.



전문가: 예, 쇼트폼입니다. 쇼트폼을 통해 요리뿐만 아니라 패션, 경제, 과학 등 각종 분야의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기존 미디어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설문에서 쇼트폼을 통해 뉴스를 시청한다고 28%나 응답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기업들이 쇼트폼을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문가: 쇼트폼을 활용하면 사람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파급력이 있고 소비자 반응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기업들이 쇼트폼을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지요. 제 블로그에 쇼트폼 마케팅 사례를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화면 아래의 '더 보기'를 클릭하면 블로그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보일 테니 필요하시면 참고해 주세요.

진행자: ㉣ 쇼트폼을 시청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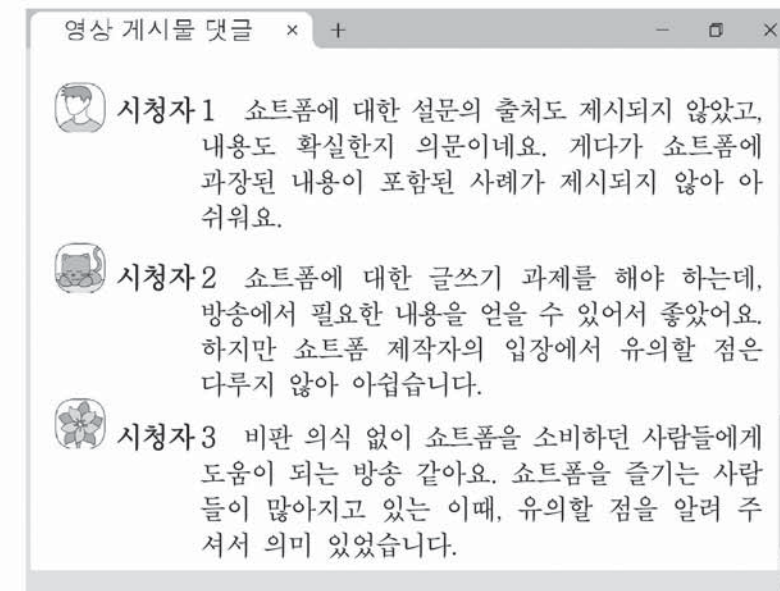
전문가: 아무래도 짧은 시간 내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조회 수를 높이려다 보니, 쇼트폼에는 자극적인 장면이나 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쇼트폼의 장면을 선불리 따라하거나 정보를 맹목적으로 수용하기보다 비판적 시각으로 판단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실시간 채팅' 아래에 관련 영상이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시청해 보셔도 좋겠네요.

진행자: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누구나 시청하실 수 있도록 공개해 두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은 ㉤ 영상 게시물에 댓글을 남겨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글자의 크기와 글꼴을 달리하여 방송에서 다루는 중심 화제를 부각하고 있군.
② ㉡: 전문가의 발언에 비판적 의문을 제기하는 시청자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보여 주고 있군.
③ ㉢: 방송에서 다룬 내용과 관련 있는 영상을 제시하고 있군.
④ ㉣: 방송 중 언급된 블로그에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군.
⑤ ㉤: 방송에서 송출되는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보여 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군.

41. 다음은 시청자들이 올린 댓글의 일부이다. 시청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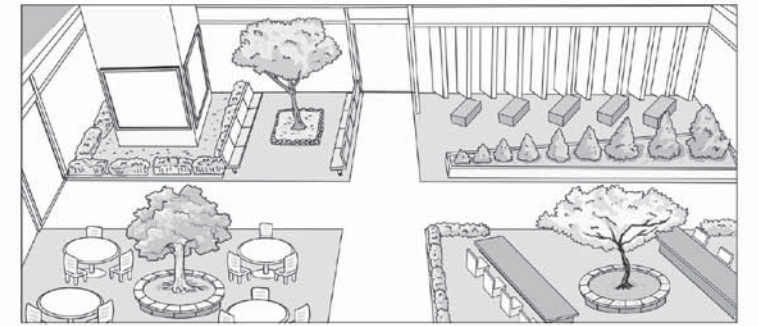
- ① 시청자 1과 시청자 2는 모두 방송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② 시청자 1과 시청자 3은 모두 방송에 제시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③ 시청자 1과 달리, 시청자 2는 방송에 제시된 정보의 충분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④ 시청자 1과 달리, 시청자 3은 방송에 제시된 정보의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⑤ 시청자 2와 달리, 시청자 3은 방송에 제시된 정보의 시의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부정 표현을 활용해 쇼트폼의 재생 시간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
② ㉡: 진행상을 활용해 현재 쇼트폼의 조회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중임을 드러내고 있다.
③ ㉢: 대등적 연결 어미를 연속적으로 활용해 쇼트폼이 인기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④ ㉣: 설명 의문문을 활용해 쇼트폼 시청 시 유의할 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⑤ ㉤: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를 활용해 쇼트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43~45] (가)는 학생회 누리 소통망[SNS]의 게시물이고, (나)는 학생회 학생들의 온라인 화상 회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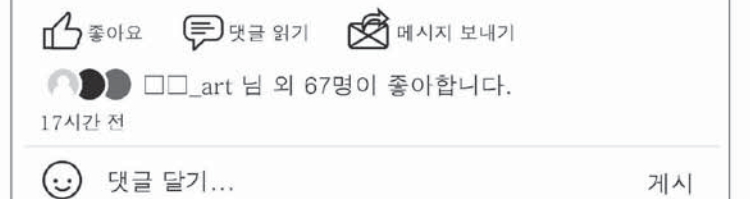
(가)



위에 있는 사진과 같이 우리 학교에 친환경 정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정원의 벤치, 테이블, 화단 틀 등을 보셨나요? 그것들은 모두 폐현수막과 폐의류를 재활용한 자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학생회에서는 친환경 정원 조성의 취지를 알리고 친환경 의식을 높이기 위한 체험 행사를 개최합니다. 친환경의 의미를 담은 시화 관람, 물품 나눔, 친환경 생활을 위한 한 줄 다짐 쓰기, 재활용품으로 물품 만들기 등 다채로운 활동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https://o.o.o.hs.kr/66193/subMenu.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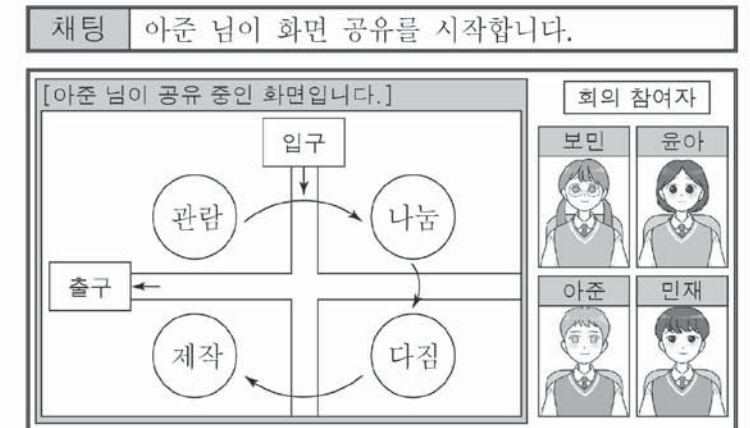
★ 참여 신청 및 문의 사항은 학생회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 주세요.



(나)

보민: 지난 회의에서 친환경 체험 행사의 다양한 활동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행사 안내도를 만들기로 했잖아. 회의를 시작해 볼까?

아준: 정원의 조감도를 이용해 안내도 초안을 만들면서 활동에 따라 공간을 구획해 봤어. 화면을 봐 줘.



윤아: 화면에서는 시화 관람, 물품 나눔, 한 줄 다짐 쓰기, 재활용품으로 물품 만들기 순으로 체험 순서를 제시했는데, 체험 순서를 정하면 학생들의 활동 참여에 제약이 있겠어.

01

정답과 해설 |

회 | 2023학년도 3월 학력평가

Q3

정답

공통 | 독서·문학

01 ③ 02 ⑤ 03 04 04 05 2 06 ⑤ 07 04 08 ① 09 04 10 ① 11 2 12 ⑤ 13 ① 14 2 15 ③ 16 ⑤ 17 2 18 04 19 ⑤ 20 ③ 21 ⑤ 22 ① 23 ③ 24 ③ 25 ② 26 ① 27 ③ 28 ① 29 2 30 ⑤ 31 ③ 32 04 33 2 34 ③

선택 | 언어와 매체

35 04 36 ③ 37 ① 38 04 39 ⑤ 40 2 41 04 42 ⑤ 43 ① 44 2 45 ③

★ 표기된 문항은 [등급을 가르는 문제]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01~34] 독서·문학

01~03

인문

박영목, 『독서 교육론』

해제 이 글은 상위 인지의 자기 규제 기제를 이용한 독해 과정 조정 작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독자가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적절한 독서 전략을 활용하면 성공적인 독서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독서 목적에 따라 독서 행위를 조정하고, 독자의 배경지식을 활용하면서 독해 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책을 읽으면서 문맥 정보를 활용하여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추론하고, 글의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여 내용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 독서 과정에서 읽은 내용의 이해 정도를 점검하고 이해에 실패했을 경우, 다른 독서 전략을 활용하는 등의 독해 과정 조정 작용도 성공적인 독서를 가능하게 한다. 독서 연구에 따르면 독서 능력이 우수한 독자는 이러한 독해 과정 조정 작용을 능숙하게 수행하며, 독서 목적에 맞는 독서 전략을 선택한다. 반면에 독서 능력이 부족한 독자는 독해 조정 작용에 부족함이 있으며, 글을 읽는 목적을 문자 해독에 두는 경향이 있다.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독해 과정 조정 작용을 잘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경험을 쌓아 독서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주제 상위 인지의 자기 규제 기제를 이용한 독해 과정 조정 작용

문단 핵심 내용

1문단	인지 조정의 일종인 독해 조정 과정
2문단	성공적인 독서를 위한 독해 과정 조정 작용
3문단	성공적인 독서를 위한 방법

01 내용의 사실적 이해 정답률 81% | 정답 ③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자기 규제 기제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은 상위 인지에 해당한다. 1문단의 '상위 인지는 어떤 과업의 성취를 보장하는 자기 규제 기제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자신이 시도한 행위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자기 규제 기제를 이용한 것이다. 1문단의 '자기 규제를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에 대해 스스로 점검한다든지, 자신이 시도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자기 규제 기제를 이용하는 인지 조정은 독해 과정 조정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1문단을 통해 자기 규제 기제를 이용하는 지적 행위로 인지 조정을 들 수 있고, 독해 과정 조정은 인지 조정의 일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지 조정은 자기 독해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우수한 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용 이해 정도를 점검할 때 독서 목적에 따라 점검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2문단의 '우수한 독자는 자신의 내용 이해 정도를 점검할 때도 독서 목적에 따라 점검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독서 능력이 우수한 독자와 부족한 독자는 독서 과정에서 동일한 수준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양상이 서로 다를 수 있다. 2문단의 '우수한 독자는 독서 능력이 부족한 독자와 동일한 수준의 배경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독서 과정에 활용하는 능력이 다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02 핵심 정보의 구체적 상황への 적용 정답률 93% | 정답 ⑤

다음은 학생이 자신의 읽기 과정을 기록한 글이다. 윗글의 ㉠을 참고하여 다음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진로 독서 활동으로 임상 심리사에 대해 설명하는 책을 선정해서 읽기 시작했다. ㉠ 임상 심리사 수련 과정에서 '수련'이라는 말의 의미를 몰랐는데, 관련 부분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었다. 이 책에서는 임상 심리사가 되기 위해 공부해야 하는 심리학 내용도 소개하고 있는데, ㉡ 진로 시간에 배웠던 것이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부분을 읽을 때는 전문 용어가 많아 이해하지 못한 내용들도 있었다. 그래서 ㉢ 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표시해 놓고 관련 자료를 찾아 이해했다. ㉣ 이 책을 읽은 중요한 목적이 임상 심리사의 실무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읽을 때는 다른 부분보다 시간을 많이 들어 꼼꼼히 읽었다. 이 책은 임상 심리사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지 만 ㉤ 임상 심리사의 직업 전망은 다루지 않아 아쉬웠다.

- ㉠은 문맥 정보를 활용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했음을 보여 주는군. ㉡는 학생이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어휘의 의미를 유추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문맥 정보를 활용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 ㉠는 책의 내용을 자신의 배경 지식과 관련지어 이해했음을 보여 주는군.

002 고3·3학년 국어 | 공통+언어와 매체 [Light]

- ㉡는 학생이 진로 시간에 배운 내용이 심리학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책의 내용을 자신의 배경지식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 ㉠는 내용 이해에 실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했음을 보여 주는군. ㉡는 학생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읽을 때는 다른 부분보다 시간을 많이 들여 꼼꼼히 읽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내용 이해에 실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 ㉠는 독서 목적을 고려해 독서 행위를 조정했음을 보여 주는군. ㉡는 학생이 책을 읽은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을 읽을 때는 다른 부분보다 시간을 많이 들여 꼼꼼히 읽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독서 목적을 고려해 독서 행위를 조정하였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은 글의 논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했음을 보여 주는군. <보기>에서는 임상 심리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진로 독서 활동 상황에서 수행한 독서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2문단을 통해 논리적 구조의 활용은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보기>의 ㉡는 책의 내용에서 다루지 않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 글의 논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3 내용에 따른 특정 상황의 이해 정답률 91% | 정답 ④

[A]에 근거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특정 역사적 사건의 다양한 의미를 다른 글을 학생 갑, 을에게 제시하고 글의 주제를 파악하고 하였다. 그리고 갑, 을에게 이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물어보았다. 갑은 사전을 참고해 낯선 용어의 뜻을 알아가는 데 주목하면서 읽겠다고 답하였고, 을은 관점별로 사건의 의미를 정리하여 비교하면서 읽겠다고 답하였다. 그 후 학생의 실제 독서 결과, 갑은 주제 파악에 실패했지만 을은 주제 파악을 쉽게 했다.

- 갑과 달리, 을은 독서를 문자 해독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을보다 갑이 독서를 문자 해독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을과 달리, 갑은 텍스트 전체에 관한 의미 구성이라는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독해 과정을 조정하는 능력이 있겠군. 을은 독서 목적에 맞는 독서 전략을 선택하고 주제 파악도 쉽게 했기 때문에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독해 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글의 주제에 관한 의미를 구성하는 인지 조정을 갑이 을보다 더 수월하게 수행하는 능력이 있겠군. 갑은 독서 목적과 상관없는 독서를 행하여 주제 파악에 실패하고 있으므로 독서 과정에서 인지 조정을 수행하는 능력이 을보다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 글의 주제에 관한 의미 구성과 관련해 상위 인지를 활용한 독서 능력은 을이 갑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군. <보기>를 통해 을은 독서 목적에 맞는 전략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글의 주제를 잘 파악했지만, 갑은 독서 목적에 맞는 전략을 적절하게 선택하지 못하여 주제 파악에 실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문단을 통해 독서 목적에 맞는 독서 전략을 선택한다는 것은 상위 인지를 활용한 독서 능력이 뛰어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3문단의 내용을 볼 때, 주제 파악이라는 독서 목적에 맞는 독서 전략을 선택하여 주제 파악에 성공한 을은, 그렇지 못한 갑보다 상위 인지를 활용한 독서 능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 독서 전략을 비교해 볼 때 갑이 을에 비해 독해 과정을 조정해 나가는 경험을 더 많이 쌓아 왔다고 할 수 있겠군. 을은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독해 과정을 조정해 나가는 경험을 갑보다 많이 쌓아 왔다고 할 수 있다.

04~09 인문

(가) 장대익, '다윈의 실타'

해제 이 글은 인간과 고등 지능 동물의 행동 차이를 보여 주는 실험을 소개하면서 인간 모방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관찰과 학습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모방의 개념은 인간과 고등 지능 동물의 행동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좀 더 분명히 이해된다. 동일한 구조의 먹이 상자 2개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의 행동 차이를 거울 뉴런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의 거울 뉴런은 목표 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거의 활성화되지 않지만, 인간의 거울 뉴런은 행동 목표 외에도 행동이 실행되는 방식이나 의도 모두에서 정교하게 활성화될 수 있다. 있는 그대로를 따라 하는 인간의 모방 메커니즘은 모방의 진정한 의미를 시사한다.

주제 인간 모방의 특징

문단 핵심 내용	
1문단	모방의 의미 및 모방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2문단	인간과 고등 지능 동물의 행동 차이를 보여 주는 모방 실험
3문단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의 행동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거울 뉴런
4문단	인간의 모방 과정에 관여하는 거울 뉴런의 특징

(나) 김동규 외, '미생물이 플라톤을 만났을 때'

해제 이 글은 도킨스와 블랙모어의 견해를 바탕으로 mim의 특징과 유용성을 서술하고 있다. 도킨스는 인간이 유전자의 운반체라고 불과하다고 주장하였고, 나아가 유전자 전달과 마찬가지로 문화도 특정 정보 단위로 복제된다고 하면서 그러한 것을 mim이라고 불렀다. mim은 모방을 통해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퍼뜨려진다. 블랙모어는 이것을 기생-숙주 모델로 설명하였는데, mim을 더 많이 퍼뜨리는 복제 전략을 위해 mim에게는 숙주인 인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mim의 전달이 모방을 통해 일어난다고 할 때, 블랙모어는 모방을 전염, 개인적 학습,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과 구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mim의 존재와 기능에 대해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mim 집단지자들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신경 과학 관점에서 mim을 설명하여 시도하였다. mim 이론은 사상과 문화 등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주제 mim의 특징과 유용성

문단 핵심 내용	
1문단	문화도 특정 정보 단위로 복제된다고 여긴 도킨스
2문단	도킨스의 mim의 의미 및 기생-숙주 모델로 mim을 설명한 블랙모어
3문단	모방을 '전염', '개인적 학습',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과 구별한 블랙모어
4문단	mim 이론 지지자들의 입장 및 mim 이론의 의의

04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률 68% | 정답 ④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는 거울 뉴런에 초점을 맞춰 뉴런의 기원을, (나)는 문화에 초점을 맞춰 mim의 기원을 규명하였다. (가)를 통해 거울 뉴런에 초점을 맞춰 뉴런의 기원을 설명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나)를 통해 문화에 초점을 맞춰 mim의 기원을 설명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가)는 모방의 과정을 바탕으로 거울 뉴런의 기능을, (나)는 유전자 전달을 중심으로 유전의 특징을 소개하였다. (가)를 통해 거울 뉴런의 기능을 알 수 있지만, 이를 모방의 과정을 통해 소개하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유전자 전달을 중심으로 유전의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가)는 사례의 일반화를 통해 모방의 분류 기준을, (나)는 사례의 유형화를 통해 mim이 확산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가)를 통해 모방의 분류 기준은 찾아볼 수 없고, (나)를 통해 사례의 유형화를 통해 mim이 확산되는 과정을 찾아볼 수 없다.

✔ (가)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 모방의 특징을, (나)는 학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mim의 특징과 유용성을 서술하였다. (가)에서는 인간과 고등 지능 동물의 행동 차이를 보여 주는 실험을 통해,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은 시범자의 행동을 따라 할 때 차이점이 있다는 실험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즉, 아이들이 달리 어린 침팬지들은 행동 목표를 관찰하기 어려울 경우 시범자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러한 행동이 거울 뉴런 때문임을 밝히면서, 인간은 모방 메커니즘을 통해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까지도 정확히 모방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에서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 모방의 특징을 설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도킨스와 블랙모어의 mim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mim의 특징과 유용성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mim의 관점에서 문화 전달을 설명하려는 mim 이론이 사상과 문화 등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임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나)에서는 mim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mim의 특징과 유용성을 설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 (가)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통해 모방의 특성을, (나)는 mim과 유전의 차이를 통해 유전자 복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가)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통해 모방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나)를 통해 mim과 유전의 차이를 통해 유전자 복제의 특성을 분석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5 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률 73% | 정답 ②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실험에서 어린 침팬지가 행동 목표를 관찰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가)의 2문단을 통해 투명 상자 실험에서 어린 침팬지들이 먹이를 얻는 목표와 관련 있는 행동을 따라 하고 먹이를 얻는 데 불필요한 행동은 알아서 제거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문단을 통해 목표 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모방'에서 가장 높은 활성화율을 보이는 거울 뉴런이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험에서 어린 침팬지가 행동 목표를 관찰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 (가):아이들의 거울 뉴런은 어린 침팬지들의 거울 뉴런과 달리 행동이 실행되는 방식을 모방할 수 없을 것이다. (가)의 3문단을 통해, 목표 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의 거울 뉴런은 거의 활성화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거울 뉴런은 행동 목표 외에도 행동이 실행되는 방식이나 의도 모두에서 정교하게 활성화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이들의 거울 뉴런은 어린 침팬지들과 달리 목표 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동이 실행되는 방식을 모방한다고 할 수 있다.

- (가):거울 뉴런의 활성화가 모방에서 가장 높은 이유는 행동에 대한 관찰과 행동의 실행이 모두 충족되기 때문이다. (가)의 1문단을 통해 모방이 새로운 행동이나 선천적이지 않은 행동 그 자체를 복제한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고, 3문단을 통해 거울 뉴런이 '행동에 대한 관찰'이나 '관찰을 포함하지 않은 행동의 실행'보다 모방에서 가장 높은 활성화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찰과 행동의 실행이 모두 필요한 모방에서 거울 뉴런의 활성화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 (나):도킨스는 비유전적 방식으로 전개되는 문화의 전승을 mim으로 설명한다. (나)의 1문단의 '유전자 전달과 마찬가지로 문화도 특정 정보 단위로 복제된다고 하면서 그러한 것을 mim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했다.'와 2문단의 '도킨스에 의하면 mim이란 유전과는 구별되는, 문화와 관련된 복제의 기본 단위이다.'의 내용을 통해 적절한 이해임을 알 수 있다.
- (나):블랙모어의 기생-숙주 모델에서는 mim이 전달될 때 인간은 mim의 숙주라고 본다. (나)의 2문단의 '블랙모어는 이것을 기생-숙주 모델로 설명한다. 바이러스가 숙주에 기생해 복제를 반복하여 자기 존재를 확장하고 인근의 숙주들을 전염시키듯이 mim에게는 mim을 더 많이 퍼뜨리는 복제 전략을 위해 숙주인 인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를 통해 적절한 이해임을 알 수 있다.

06 구체적 상황への 적용 정답률 54% | 정답 ⑤

[A]와 [B]를 연결 지어 <보기>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어느 지역 사육사들이 원숭이들에게 밭에서 갠 고구마를 모래밭에 매달 둔지 주었고, 흙과 모래가 묻은 고구마를 원숭이들은 그냥 먹었다. 어느 날 '미미'라 불리는 젊은 원숭이가 그런 고구마를 물가로 가져가 씻어 먹기 시작했다. 흙이 묻은 점은 이런 행동을 미미의 친척 원숭이들이 따라 하기

시작하더니 두 세대 만에 그 지역 대부분의 원숭이들이 고구마 씻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미가 고구마를 물로 씻어 먹는 것을 관찰한 다른 원숭이들이 자신에게도 고구마가 주어졌을 때 물가에 가서 씻어 먹은 것은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원숭이가 고구마를 물로 씻는 행동을 선천적으로 할 줄 안다면 새로운 행동을 배운 것은 아니겠군. [B]를 통해 선천적 행동은 새로운 행동을 배운 것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미미가 혼자서 고구마를 물가에서 씻어 먹는 것을 즐겼다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여 특정 행동을 학습한 것이겠군. [B]를 통해 미미가 혼자서 고구마를 물가에서 씻어 먹는 것을 즐겼다는 것은 개인적 학습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 학습은 개체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특정 반응이나 행동을 하는 것인데, 관찰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 관찰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는 환경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 미미의 친척 원숭이들이 미미를 따라 행동하게 되었겠군. 관찰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는 환경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 미미의 친척 원숭이들이 미미를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은, [B]에 따르면 자극에 따른 반응이 적절한 보상을 받는 환경에 대해 학습이 이루어진 비모방적 학습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 물로 씻어 먹기 좋게 된 고구마가 보상으로 작용해 두 세대 만에 그 지역 대부분의 원숭이들이 고구마 씻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미미를 관찰하여 흙과 모래가 묻은 고구마가 있으면 물로 씻어 먹는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 원숭이는 미미를 모방하여 고구마를 물로 씻는 행동 자체를 배운 것이겠군. <보기>에서 미미가 고구마를 물로 씻어 먹는 것을 관찰한 다른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물로 씻어 먹는 것은 [B]를 볼 때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의 사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A]를 통해 행동 그 자체를 복제하는 것이 모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물로 씻어 먹는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 원숭이가 고구마를 물로 씻는 행동 자체를 배운 것이 아니 모방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와 [B]를 연결 지어 이해하면 행동 그 자체를 복제하는 것이 모방이기 때문이다.

07 핵심 정보의 구체적 상황への 적용 정답률 50% | 정답 ④

(나)의 [미 이론]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자손 갖기를 거부하는 독신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하나의 밍으로 번지고 있다. 이 mim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은 자손을 통해 유전자를 전달하지 않는다.

- 독신주의 mim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람은 mim의 복제자이자 행위자이다. (나)의 2문단을 통해 mim 이론에서 복제자이자 행위자는 mim이고, 인간 개체를 행위자로 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mim은 자손 갖기를 거부하는 독신주의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나)의 2문단을 통해 mim은 문화와 관련된 복제의 기본 단위이므로, mim을 매개체라 할 수 없다.
- mim은 유전자 전달과 마찬가지로 복제될 수 있으므로 독신주의 mim이 자손에게 유전된다. (나)의 2문단을 통해 mim은 복제될 수 있지만 유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자손을 통해 유전자를 전달하려는 유전자의 전략과 자손 갖기를 거부하는 독신주의 mim의 전략은 충돌할 수 있다. (나)의 2문단을 바탕으로 할 때, 자손을 통해 자신의 복사본을 더 많이 퍼뜨리려는 유전자의 전략과 자손 갖기를 거부하는 독신주의를 더 많이 퍼뜨리려는 mim의 전략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현대 사회에서 독신주의 mim이 널리 퍼지는 이유는 mim을 적극적으로 수용할수록 유전자 전달이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나)의 2문단을 통해 mim은 유전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mim을 적극적으로 수용할수록 유전자 전달이 유리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 등급을 가르는 문제! 08 특정 입장의 발원 추리 정답률 32% | 정답 ①

㉠에 근거하여 ㉡이 ㉢을 반박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mim은 거울 뉴런 활성화를 통해 설명될 수 있으므로 물리적 실체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은 거울 뉴런이 인간의 모방 과정에 관여한다는 설명이고, ㉢은 mim의 존재나 기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이며 ㉡은 mim 이론 지지자들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에 근거하여 ㉡이 ㉢을 반박할 수 있는 말이어야 하므로 mim의 존재나 기능을 옹호하는 말을 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가), (나)를 통해 mim이 모방의 과정을 통해 전달되고, 모방의 과정에서 거울 뉴런의 활성화라는 물리적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mim은 거울 뉴런 활성화를 통해 설명될 수 있으므로 물리적 실체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반박할 것임을 알 수 있다.

- 거울 뉴런이 인간의 주제적 의지로 활성화되므로 mim은 문화 전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거울 뉴런이 인간의 주제적 의지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 모방에 의해 전파되는 mim의 복제 원리가 불명확하더라도 mim은 문화 확산을 설명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mim의 복제 원리가 불명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 ㉢을 반박할 수 있는 말로 보기 어렵다.
- 거울 뉴런의 활성화가 영장류에서 폭넓게 관찰되기 때문에 mim은 인간 외 영장류에서도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mim이 인간 외 영장류에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에 근거하여 도출하기 어렵다.
- 거울 뉴런은 관찰 없이 활성화되므로 인간 뇌에서 뇌로 건너다닐 수 있다는 것을 mim의 복제 원리로 제시할 수 있다. mim은 모방의 과정을 통해 전달되는데, 모방은 관찰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01회] 2023학년도 3월 003

★★ 문제 해결 꿀~팁 ★★

▶ 많이 틀린 이유는?

이 문제는 글의 내용을 통해 거울 뉴런과 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도 오답률을 높인 원인으로 보인다.

▶ 문제 해결 방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문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밌의 존재나 기능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이는 사람)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즉, ㉠은 밌이 물리적 실체가 아니므로 구체적 단위를 설정하기 어렵고, 복제 원리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이 ㉡을 반박하려면 ㉡이 지닌 입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해야 한다. 밌이 물리적 실체이고 구체적 단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과 복제 원리가 명확하다는 점을 제시하면 된다. 그리고 ㉢에 근거하여라는 단서가 불었으므로 ㉡을 바탕으로 반박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 정당임을 알았을 것이다. 한편 이 문제는 거울 뉴런과 밌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있었어도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었는데, ㉡, ㉣, ㉤의 경우 거울 뉴런과 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문제처럼 글에 제시된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핵심 개념과 관련된 부분에는 반드시 밑줄을 그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09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률 85% | 정답 4

문맥상 ㉠ ~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씨서
 ㉢은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름게 쓰다.'의 의미이므로, '씨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 ㉢: 얻었다
 ㉢은 '얻어 내거나 얻어 가지다.'의 의미이므로, '얻었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 ㉣: 서로 다르다
 ㉢은 '서로 다르다.'의 의미이므로, '서로 다르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 이르지 못한다고

'불과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그 수준을 넘지 못한 상태이다.'이므로, '이르지 못한다고'는 문맥상 '불과하다'고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지나지 않는다고' 정도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 ㉤ ㉥: 거둬하여
 ㉥은 '같은 일을 되풀이하다.'의 의미이므로, '거둬하여'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0~13 사회

박동진, 「물권법 강의」

해제 이 글은 부동산의 등기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물건에 대해 지배력을 갖는 권리를 물건이라고 하는데, 물건 중에서도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동산보다 값비싼 재산이어서 그에 대한 거래는 신중할 수밖에 없어 절차를 다소 번거롭게 하고 있다. 부동산은 등기를 하여 그 권리관계를 사회 일반에 공개하여 게시하는데,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편성되며, 한 물건에 하나의 등기 기록만 존재한다. 부동산 매매와 같이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는 기입등기라고 하며, 완료된 등기에서 오류를 확인하여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려는 등기는 경정등기라고 한다. 그리고 등기의 효력을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가 있는데, 우리 법제는 등기부에 명의가 기재되었을 때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주제 부동산 등기의 이해

문단 핵심 내용

1문단	거래 절차가 번거로운 부동산 거래
2문단	부동산 등기의 이해
3문단	기입등기와 경정등기의 이해
4문단	등기 신청의 주제 및 목적
5문단	등기의 효력을 정하는 것과 관련한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

10 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률 74% | 정답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소유권과 같은 물권은 물건에 대해 지배력을 갖는 권리이다.

1문단을 통해 물건에 대해 지배력을 갖는 권리인 물권에는 점유권, 소유권, 전세권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부동산에 관한 점유권, 소유권과 같은 사항은 등기부의 을구에 기재된다.
 2문단을 통해 을구에는 전세권, 저당권과 같이 소유권이 아닌 물권들이 설정되어 있다면 기재됨을 알 수 있다.
- ③ 등기부의 편성은 진정한 권리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권리자를 중심으로 한다.
 2문단을 통해 등기부의 편성은 소유자가 아니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등기부는 관련된 당사자만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정보를 보호한다.
 2문단을 통해 부동산 물건에 관한 사항은 등기로 사회 일반에 공개하여 게시함을 알 수 있으므로, 관련 당사자만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⑤ 하나의 물건에 성립한 여러 물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물건에 대한 복수의 표제부가 붙을 수 있다.
 2문단을 통해 한 물건에 대하여는 한 개의 등기 기록만 두게 함을 알 수 있으므로, 하나의 물건에 여러 물권을 표시하기 위한 복수의 표제부가 붙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11 핵심 정보의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률 51% | 정답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04 고3·3학년 국어 | 공통+언어와 매체 [Light]

- ① 매수인은 매도인의 등기 신청을 위임받을 수 있다.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수인이 매도인의 등기 신청을 위임받아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의 등기 신청을 위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매수인은 등기의무자가기 때문에 매도인과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권리자는 등기부에 새롭게 권리자로 오르게 되는 이를 가리키므로 아파트를 구입한 매수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은 등기권리자이지 등기의무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등기의무자는 매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매수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명인의 변경을 위해 신청하려는 등기는 기입등기이다.
 매매를 통해 소유권자가 바뀌는 것과 같이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를 기입등기임을 알 수 있다.
- ④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매도인은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건네주어야 한다.
 매매대금의 지급이 마무리되면 매수인은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필증을 비롯한 관련 서류를 건네 받을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매도인이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건네주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⑤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 해당한다. 관행상 계약금은 위약금의 역할도 한다 고 보기 때문에 매수인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서, 매도인이라면 그 두 배를 물어 주고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2 핵심 정보의 이해

정답률 45% | 정답 5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대항요건주의는 등기가 소유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이 되지 않는 원칙이다.
 5문단을 통해 대항요건주의는 계약이 완료되면 당사자 사이에 물건 변동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공시를 갖추지 않을 때는 제3자에게 물건 변동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원칙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항요건주의에서는 등기를 통해 공시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 변동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알 수 있다.
- ② 등기는 물건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물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한다.
 2문단을 통해 부동산 물건에 관한 사항은 등기로 사회 일반에 공개하여 게시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문단을 통해 등기상의 공시를 신뢰하여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는 진정한 권리관계를 반영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등기는 물건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물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의해 저장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기입등기에 해당한다.
 3문단을 통해 매매를 통해 소유권자가 바뀌는 것과 같이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를 기입등기라고 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 저장권설정등기 등이 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의해 저장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기입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④ 신청상의 착오로 일치하지 않는 등기의 기재가 있으면 경정 등기를 신청하여 바로잡을 수 있다.
 3문단을 통해 완료된 등기가 신청상의 착오로 말미암아 실제적 법률관계와 불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 경정등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한 우리 법제에서는 계약의 완료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 절차는 필수적이다.

5문단을 통해 성립요건주의는 공시를 갖추어야 물건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법제가 따르는 성립요건주의에서는 계약의 완료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3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률 91% | 정답 1

㉠의 문맥적 의미와 유사하게 쓰인 것은?

✔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이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의 '이루어지다'는 '어떤 대상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나 결과가 생기거나 만들어지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의 '이루어진다면'이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② 우리 교향악단은 최정삼급의 연주자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가 모여 일정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존재가 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③ 이곳은 백삼십여 호로 이루어진 마을입니다.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가 모여 일정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존재가 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④ 민회는 기호와의 사랑이 이루어져 행복했다.
 '뜻한 대로 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니 기분이 좋다.
 '뜻한 대로 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14~17 기술

이운우,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입자 제조」

해제 이 글은 초임계 유체를 사용하는 결정화 공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혼합물이 과포화 상태가 되어 용질이 고체 입자로 석출되는 것을 결정화라 하는데, 제액 등의 분야에서는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다. 온도와 압력이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이상일 때 물질은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초임계 상태로 존재한다. 결정화 공정에서는 초임계 유체의 밀도를 변화시켜 고체 입자의 밀도를 조절한다. GAS 공정에서는 초임계 이산화 탄소를 반응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응매는 용질을 녹이지 않고 용매와는 잘 섞이는 물질이다. GAS 공정에서는 초임계 이산화 탄소를 혼합물에 넣어 혼합물을 과포화 상태로 만들어 용질을 고체 입자로 석출한다. RESS 공정에서는 초임계 이산화 탄소를 용매로 사용한다. GAS 공정과 RESS 공정 등의 결정화 공정에서는 주로 초임계 이산화 탄소를 사용한다. 이산화 탄소는 임계 온도가 상온과 큰 차이가 없어 압력 조절을 통해 쉽게 초임계 상태로 만들 수 있고, 그 자체로 독성이 없어 안전성 측면에서도 적합한 물질이기 때문이다.

주제 초임계 유체를 사용하는 결정화 공정의 이해

문단 핵심 내용	
1문단	결정화의 의미 및 결정화 공정의 사용 분야
2문단	초임계 유체를 쓰는 경우가 많은 결정화 공정
3문단	초임계 이산화 탄소를 반응매로 사용하는 GAS 공정의 이해
4문단	결정화 공정에서 결정핵이 생성되어야 하는 이유
5문단	초임계 이산화 탄소를 용매로 사용하는 결정화 공정인 RESS 공정
6문단	GAS 공정과 RESS 공정 등 결정화 공정에서 이산화 탄소가 주로 쓰이는 이유

14 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률 57% | 정답 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임계 이산화 탄소를 용매로 사용하여 용질을 석출할 수 있다.
 5문단을 통해 RESS 공정에서는 결정화하려는 물질과 초임계 이산화 탄소가 섞인 혼합물을 분사하여 고체 입자를 석출함을 알 수 있다.

✔ 혼합물에 반응매를 첨가하면 원래 있던 용매의 양이 줄어든다.

3문단을 통해 반응매는 용질을 녹이지 않고 용매와는 잘 섞이는 물질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문단을 통해 GAS 공정에서 반응매를 혼합물에 첨가하면 반응매는 혼합물의 용매와 섞이고 반응매와 섞이지 않은 용질은 혼합물의 용매와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응매를 첨가한다고 하여 원래 있던 용매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 ③ 이산화 탄소는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고 온도가 상온과 큰 차이가 없다.
 6문단을 통해 이산화 탄소는 임계 온도가 상온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④ 과포화 상태의 혼합물이 포화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으로 인해 용질이 석출된다.
 1문단을 통해 과포화 상태의 혼합물은 포화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결정화는 혼합물이 과포화 상태가 되어 용질이 고체 입자로 석출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⑤ 초임계 이산화 탄소는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어 결정화 공정에 쓰이기에 적합하다.
 6문단을 통해 초임계 이산화 탄소는 그 자체로 독성이 없어서 안전성 문제에서 자유로움을 알 수 있다.

15 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률 58% | 정답 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은 초임계 이산화 탄소가 액체가 되는 과정에 사용된다.
 5문단을 통해 대기압을 유지하는 용기로 ㉡을 분사하여 고체 입자를 석출하는 과정에서 초임계 이산화 탄소는 기체가 됨을 알 수 있다.
- ② ㉠과 달리, ㉡은 농도에 따라서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수가 정해진다.
 5문단을 통해 GAS 공정에서도 RESS 공정과 마찬가지로 처음 채운 혼합물의 농도에 따라 석출 가능한 용질의 양은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 ㉠과 달리, ㉡에는 용질이 초임계 이산화 탄소가 아닌 용매에 녹아 있다.
 3문단을 통해 ㉡은 결정화하려는 용질이 액체 용매에 녹아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고, 5문단을 통해 ㉡은 결정화하려는 용질이 초임계 이산화 탄소에 녹아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5문단을 통해 결정화 과정에서 ㉡의 초임계 유체는 기체가 됨을 알 수 있다.

- ④ ㉠과 달리, ㉡에는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이상의 이산화 탄소가 섞여 있다.
 3문단을 통해 ㉡은 결정화하려는 물질을 액체 용매에 녹인 것임을 알 수 있고, ㉡은 결정화하려는 물질과 초임계 이산화 탄소가 섞인 것임을 알 수 있다.
- ⑤ ㉠과 ㉡은 모두 결정화 공정에서 용매에 분사된다.
 5문단을 통해 ㉡은 결정화 공정에서 용매가 아니라 대기압을 유지하는 용기로 분사됨을 알 수 있다.

16 이유의 추리

정답률 43% | 정답 5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초임계 유체를 용매로 사용하여 포화 상태의 혼합물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포화 상태의 혼합물을 더 높은 압력에서 만들면 결정화 공정을 통해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입도는 더 작아지는데, 이는 ㉠ 때문이다.

- ① 결정핵이 더 적게 생성되기
 4문단을 통해 결정핵이 많이 생성되면 고체 입자의 입도가 작아짐을 알 수 있다.
- ② 결정핵이 초임계 상태가 되기
 2문단을 통해 결정화 과정에서 초임계 유체를 사용함을 알 수 있지만, 결정핵이 초임계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초임계 유체의 임계 온도가 낮아지기
 6문단을 통해 초임계 유체의 임계 온도는 상온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초임계 유체의 임계 온도는 물질별로 그 수치가 정해져 있다.
- ④ 결정핵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느려지기
 초임계 유체의 밀도를 조절하여 초임계 유체가 다른 물질과 섞이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4문단을 통해 혼합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만들어지는 결정핵의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 일정한 부피당 용질 분자의 수가 많아지기

2문단을 통해 결정화 공정에서 초임계 유체의 밀도를 조절하면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입도를 작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문단을 통해 고체 입자의 석출은 일정한 수의 용질 분자가 모여 집합체를 이루어 결정핵이 생성되는 데서 시작됨을 알 수 있다. 또한 2문단을 통해 결정화 공정에서 초임계 유체가 용매로 사용될 때, 초임계 유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높이면 더 많은 양의 용질을 녹일 수 있다. 이것은 과포화가 되면 단위 부피당 석출될 수 있는 용질 분자의 수가 많아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결정핵을 만들 수 있는 용질 분자의 수가 많아져서 결정핵이 많이 생성되므로, 하나의 결정핵에 모일 수 있는 용질 분자의 수가 적어지므로 고체 입자의 크기는 작아진다고 할 수 있다.

★★★ 등급을 가르는 문제!

17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률 37% | 정답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혼합물의 농도(g/mL)	초임계 이산화 탄소를 주입하는 속도(mL/s)	석출된 A의 입도(μm)
㉠	0.01	20	35
㉡	0.03	20	25
㉢	0.03	5	70

- ① ㉠과 ㉡에서 석출된 A의 입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초임계 이산화 탄소에 녹는 A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겠군.
 ㉠과 ㉡에서 석출되는 A는 초임계 이산화 탄소에 녹지 않는다.

✔ ㉡보다 ㉢에서 석출된 A의 입도가 더 작은 것은 하나의 결정핵에 모인 용질 분자의 수가 적기 때문이겠군.

하나의 결정핵에 모일 수 있는 용질 분자의 수가 적어지면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크기가 작아진다. ㉡보다 ㉢에서 석출된 A의 입도가 더 작은 것은 하나의 결정핵에 모인 용질 분자의 수가 더 적기 때문이다.

- ③ ㉠과 ㉡에서 초임계 이산화 탄소와 B가 섞이는 속도는 다르지만 과포화되는 속도는 같겠군.
 ㉠과 ㉡에서 초임계 이산화 탄소와 B와 섞이는 속도가 다르고 이에 따라 과포화되는 속도도 다르다.
- ④ ㉠ ~ ㉢에서 석출된 A의 입도는 차이가 나더라도 각각에서 석출된 A의 양은 모두 같겠군.
 GAS 공정과 같은 결정화 공정에서는 처음 채운 혼합물의 농도에 따라 석출될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정해져 있다.
- ⑤ ㉠과 과포화되는 속도는 ㉠과 ㉢보다 느리기 때문에 ㉢에서 석출된 A의 입도가 가장 작겠군.
 ㉢은 ㉡와 비교하면 혼합물의 농도가 높고 ㉡와 비교하면 초임계 이산화 탄소를 주입하는 속도가 빠르다. 혼합물의 농도가 높으면 결정핵을 만들 수 있는 용질 분자의 수가 많아 결정핵의 생성이 빨라져 결정핵의 수가 많아지고 더 작은 고체 입자를 석출할 수 있다. 초임계 이산화 탄소를 주입하는 속도가 빠르면 과포화도가 빠르게 증가하여 더 작은 고체 입자를 석출할 수 있다.

★★ 문제 해결 꿀~팁 ★★

▶ 많이 틀린 이유는?

이 문제는 선택지와 관련된 글의 내용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 오답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택지에 제시된 '과포화되는 속도'가 글에 직접 제시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오답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 문제 해결 방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자적으로 <보기>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선택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때 선택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글의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으므로, 선택지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그런 다음 이를 바탕으로 관련된 내용을 글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가령 정답인 ㉡의 경우, 선택지를 통해 '입도가 더 작은 것'이 '하나의 결정핵에 모인 용질 분자의 수가 적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글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면 이 글을 통해 '고체 입자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4문단의 '결정핵이 많이 생성되면 ~ 고체 입자의 크기는 작아지게 된다.'를 통해 적절함을 알았을 것이다. 한편 학생들 중에는 선택지에 제시된 '과포화되는 속도'에 대해 혼란을 겪었는데, 3문단의 내용을 통해 초임계 이산화 탄소를 용기에 주입하면 과포화 상태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과포화 상태'의 속도는 초임계 이산화 탄소의 속도가 빠르면 빨라질 것임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과 ㉤은 적절하지 않음을 바로 알았을 것이다. 한편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인 경우에도 선택지 중에는 글의 내용과 어긋나는 것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과 ㉣의 경우에는 글의 내용과 어긋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 문제의 경우 글 전체를 통해 선택지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선택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빠르게 관련 내용을 글에서 찾을 수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18~21 현대 소설

이승우, 「오래된 일기」

감상 이 소설은 인간의 억압된 무의식에 잠재한 죄의식과 그 죄의식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의 소설 쓰기에 대해 말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나'의 죄의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된다. 하나는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죄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사촌인 '규'의 몫을 가로챘다는 죄의식이다. '나'는 소설 쓰기를 통해 과거의 기억을 불러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던 상처와 마주하고 죄의식의 연원을 재현하면서 자기 고백을 통한 자기 정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 작품은 관념과 현실을 넘나들며 인간의 내면을 탐구해, 소설 쓰기의 본질을 보여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제 소설 쓰기를 통한 자기 성찰과 자기 정화

작품 줄거리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난 뒤 불안한 마음에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날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나'는 큰 충격에 빠진다. '나'는 큰데에서 살게 되고,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대학에 진학한다. 이후 방위병으로 근무하기 위해 고향에 내려온 '나'는 동갑내기 사촌인 규와 함께 지내며 소설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소설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소설 쓰기를 통해 자기 성찰과 자기 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여긴 '나'는 과거의 부끄러운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소설을 쓴다. 규는 '나'가 쓴 소설을 집지사에 대신 응모하게 되어 신인상에 당선되면서 '나'는 소설가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세월이 흘러 '나'는 규가 병에 걸려 곧 죽게 된다는 말을 듣고 병문안을 가고, '규'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면서보다 '나'의 첫 등단 소설을 간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새로이 죄의식을 갖는다. 규는 '나'에게 그 소설을 읽어 달라 하고, '나'는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읽지만 미안하다는 말을 입밖으로 내뱉지는 못한다.

18 인물의 이해

정답률 87% | 정답 4

윗글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01회] 2023학년도 3월 005

[문제편 p.003]

[문제편 p.005]

- ① 경제적 형편 때문에 소설가의 꿈을 포기했다.
'나'는 '새로운 방식의 일기', 즉 소설을 쓰기 위해 밤마다 소설을 쓰고 아침에 출근하는 일을 하고 있으므로, 소설가의 꿈을 포기했다고 할 수 없다.
- ② 어릴 적 친척 누나와 함께 아버지의 돈을 훔치곤 했다.
'나'는 어릴 적 얼음과자를 사 먹기 위해 돈을 훔치고 있지만, 친척 누나와 함께 돈을 훔친 것은 아니다.
- ③ 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아버지가 죽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 얼음과자를 사 먹은 뒤 두려움을 느끼고 아버지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가 그런 생각을 한 바로 그날, '나'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었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 '나'가 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아버지가 죽게 된 이유를 알게 된 것은 아니다.

✔ **학교 앞 가게에서 구슬을 훔치고 난 뒤 불안감에 사로잡혀 지냈다.**
'나'는 일기를 쓴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면서, 과거에 학교 앞 가게에서 구슬 몇 개를 훔쳤던 일과 그때 느꼈던 불안, 두려움 등을 써 나가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를 오랫동안 원망했다.
'나'는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하여 죄의식을 갖고 있지만,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고 있다.

19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률 90% | 정답 ⑤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인물의 심리를 추적하고 있다.
[A]를 통해 공간의 이동은 찾아볼 수 없다.
- ② 인물이 주목한 다른 인물들의 과오에 대한 평가를 나열하고 있다.
[A]에서는 '나'의 과오에 대한 심리가 드러나지만 '나'가 주목한 다른 인물들의 과오에 대해 평가하지는 않고 있다.
- ③ 인물들 간의 외적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A]를 통해 '나'와 '그 친구'와의 외적 갈등은 엿볼 수 있지만, 이러한 인물들 간의 외적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 ④ 동시적 사건들의 병치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A]를 통해 동시적 사건들을 병치하지도 않고 있고,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난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 **과거의 일에 대한 내적 목소리를 삽입하여 인물 자신의 행위를 조명하고 있다.**
[A]는 '나'가 쓴 소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A]에는 같은 반 친구가 없어서 버렸으면 좋겠다고 바랐던 과거의 일에 대한 내적 반응이 '나'의 목소리로 삽입되어 있다. '나'는 과거의 그 일이 순진할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하면서 과거 자신의 행위를 조명하고 있다.

20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률 90% | 정답 ③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지갑 속 천 원짜리 다섯 장에 대한 '나'의 인식에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얼음과자를 사 먹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힌 '나'는 아버지의 지갑에 천 원짜리가 다섯 장이나 있으니 아버지가 천 원짜리 한 장이 없어진 것을 알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돈을 훔쳐 얼음과자를 사 먹은 후에 '나'는 아버지의 지갑에는 천 원짜리가 고작 다섯 장밖에 없었다며 다섯 장이라는 지폐의 숫자를 다르게 해석한다. 이를 통해 지갑 속 천 원짜리 다섯 장에 대한 '나'의 인식에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 ② ㉡ :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후회하며 '나'가 두려움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누나가 고자질하여 돈을 훔친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므로, ㉡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후회하며 '나'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 : **아버지에 대한 '나'의 바람이 오래도록 지녀 왔던 생각임을 알 수 있다.**
'나'는 얼음과자를 사 먹기 위해 아버지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난 뒤 두려움과 불안감에 아버지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으므로, ㉢은 아버지에 대한 '나'의 바람이 본능적이고 즉흥적이었음을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에 대한 '나'의 바람이 오래도록 지녀 왔던 것은 아니다.

- ④ ㉣ : '나'가 글쓰기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 계기가 갑작스러우면서도 강렬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 뒤의 '나는 낡은 일기장을 버리고 새 일기장을 ~ 나는 무언가를 꺼적이기 시작했다.'를 볼 때, ㉡은 '나'가 글쓰기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 계기가 갑작스러우면서도 강렬한 것이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⑤ ㉤ : '나'가 소설을 쓰고 있다는 의식 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글을 쓰는 데 몰두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앞에서 '나'는 소설이 아니라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일기가 소설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나'가 소설을 쓰고 있다는 의식 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글을 쓰는 데 몰두하였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21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의 감상 정답률 71% | 정답 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인간의 내면에 자리한 죄의식은 서사의 출발점이 되고 서사를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 자아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소설 쓰기는 자아의 치부를 드러내려는 욕망과 은폐하려는 욕망의 힘겨투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은 자기 변명을 통해 고백의 부담을 덜면서 자기 정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준다.

- ① '나'가 '소설을 왜 쓰는지 온전히 이해했다'는 것은, 소설 쓰기가 자기 변명을 통해 자기 정화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나'의 생각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이 글에서 '나'는 소설 쓰기를 일기 쓰기와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가 '소설을 왜 쓰는지 온전히 이해했다'는 것은, 소설 쓰기가 자기변명을 통해 자기 정화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나'의 생각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나'가 '새 일기장을 가지고 싶어'진 것은, 담임 선생님, 친구, 아버지와 관련하여 '나'가 느끼고 있는 죄의식이 서사의 동력이 되었기 때문이겠군.

이 글에서 '나'는 낡은 일기장을 버리고 '새 일기장을 가지고 싶어' 하고 어린 시절 담임 선생님, 친구, 아버지와 관련한 소설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가 새 일기장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나'가 느끼고 있는 죄의식이 서사의 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나'가 '다시 쓰는 일을 반복'하며 '열 번도 더 고쳐 썼다'는 것은, '나'가 치열한 자아 성찰을 바탕으로 소설 쓰기를 지속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이 글에서 '나'는 '다시 쓰는 일을 반복'하며 '열 번도 더 고쳐' 쓰고 있는데, 이러한 '나'의 모습은 '나'가 치열한 자아 성찰을 바탕으로 소설 쓰기를 지속하였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④ '나'가 '모순에 가득 찬 피투성이의 문장들'을 '만들어' 냈다는 것은, '나'의 소설 쓰기가 드러내려는 욕망과 은폐하려는 욕망의 힘겨투기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말해 주는 것이겠군.
이 글에서 '나'는 문장을 쓰는 동안 내 안에서 드러내려는 욕구와 은폐하려는 욕구가 치열하게 싸운다는 것을 알고, 이 때문에 '모순에 가득 찬 피투성이의 문장들'을 '만들어' 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순에 가득 찬 피투성이의 문장들'을 '만들어' 냈다는 것은, '나'의 소설 쓰기가 드러내려는 욕망과 은폐하려는 욕망의 힘겨투기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나'가 '가학적 열망에 불들려' '무엇에 켜 졌 같은 시절'을 보낸 것은, 소설 쓰기가 수반하는 피곤과 수면 부족 등의 육체적 고통이 '나'의 고백의 부담을 덜어 주었기 때문이겠군.**
'나'는 피곤과 수면 부족과 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무엇에 켜 졌 같이 소설 쓰기에 몰두하고 있는데, '나'에게 있어 소설 쓰기는 고백을 통해 자기 정화를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체적 고통이 고백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었기 때문에 '나'가 치열하게 소설 쓰기를 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22~27 고전 소설 정답률 90% | 정답 ②

(가) 구강, 「충석곡」

감상 이 작품은 회양 부사로 재직하던 작가가 관동 팔경 중 하나인 통천의 충석정 일대를 기행하고 지은 국문 가사이다. 충석정 탐승에 대한 기대, 충석정 주변 기암괴석에 대한 형용, 관동 팔경 중 충석정이 가장 뛰어나다는 찬사, 여정을 마무리하며 인재를 찾겠다는 소회 등을 진술하고 있다. 충석정 주변에 가득 들어선 돌기둥의 뛰어난 경치를 형용하면서 이를 완상하는 감흥을 다양한 고사와 결부시켜 노래하고 있다. 사실적이면서 개성이 넘치는 묘사와 함께 기암괴석을 집중적으로 노래한 점이 돋보인다.

주제 충석정에 대한 예찬 및 감상

(나) 장복검, 「고산별곡」

감상 이 작품은 총 10수의 연시조로, 청산, 녹수, 석양, 신월 등을 주요 소재로 삼아 시를 읊고 자연과 더불어 소일하면서 한가롭게 지내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제1수〉에서는 청산과 녹수가 어우러진 공간과 신월이 돌아나는 시간대를 설정하여 술을 앞에 둔 흥취를 드러내며 시를 읊래고 있다. 〈제4수〉에서는 자연에 한가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남'과의 대립을 통해 부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남'은 종장의 표현을 통해 '손'의 성격을 지남을 알 수 있다. 즉, 화자의 삶을 시종 지켜보며 그에 대해 온당한 판단을 내리는 이가 아니라, 화자의 삶의 한 단면이나 절묘순만을 살펴면서 이에 대해 옳다 그르다 쉽게 판단하는 사람이다. 화자는 '남'을 '명령 난'이라고 표현하여 자신의 삶을 옹호하고 있다. 〈제6수〉에서는 풍류를 즐기는 수단인 술을 가장 적절한 시간대에 가장 적절한 공간에서 마시겠다는 뜻을 표출하면서 '물'과 '외' 및 '달'을 언급하고 있다. 〈제6수〉에서는 어떠한 시름이나 갈등의 표출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생활에 만족하여 풍류를 즐기는 삶을 흥겹게 노래하고 있다.

주제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즐기는 풍류

(다) 백석, 「동해」

감상 이 작품은 합총과 인접한 동해의 매력을 전하며 낭만과 풍류의 정서를 밀도 있게 드러내고 있다. 무더운 여름 맥고모자를 쓰고 맥주를 마시며 거리를 거니는 글쓴이의 모습은 날아갈 듯 가볍고 흥겨운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내라는 종결 어미로 끝나는 문장의 독특한 어조가 이러한 느낌을 고조시킨다. '이렇게 맥고모자를 쓰고 배부를 마시고'라는 구절은 다양한 물상들을 나열하는 연상을 낚고 있다. 동해의 안주에 대한 생각은 전복과 해삼을 거쳐 제주 배에 대한 연상으로 이어지며, 제주 색시에 대한 연정은 자신과 관계있는 여러 지인들에 대한 생각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주제 동해를 바라보며 느끼는 낭만과 풍류

22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률 57% | 정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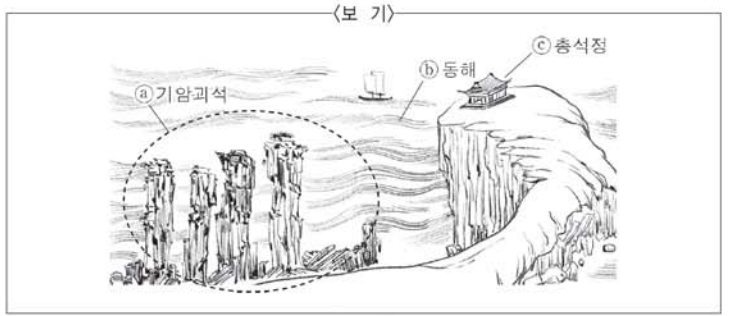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와 (나)는 대규적 표현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가)의 '여떠한 도기로 용이히 깎았으며 / 여떠한 승목으로 천천히 끌랐는고', '곤 없이 묵었으되 틈 없이 묵었으며 / 풀 없이 불었으되 흔적 없이 불었으니' 등에서 대규적 표현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의 '한 병은 물에 놓고 또 한 병 외에 놀며' 등에서 대규적 표현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규적 표현은 리듬감을 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가)와 (다)는 직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가)의 '한 묶음씩 두 묶음씩 세운 듯 누인 듯', (다)의 '제주 배 아재깽이 몸집이 철구름 같다는 등'에서 직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상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나)와 (다)는 명령적 어조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나)에서는 '마소'를 통해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강조하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다)에서는 명령형 어조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 ④ (가) ~ (다)는 모두 다른 사람을 부르는 방식으로 바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
(나)의 '내 말도 남이 마소 남의 말도 내 않겠네'를 통해 청자를 설정하고 있고, (다)에서 글쓴이는 '그대'를 부르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나), (다) 모두 바라는 것을 전달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가)를 통해 다른 사람을 부르는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 ⑤ (가) ~ (다)는 모두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가)~(다)는 모두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23 화자의 태도 및 정서 파악 정답률 49% | 정답 ③

<보기>를 활용하여 (가)의 화자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상 상황이 좋을 때 ㉢를 찾아가기 위해 서두르고 있군.
'바람 불면 못 보려니 몰아라 어서 보자'에서 알 수 있다.
- ② 배를 타고 ㉡의 한 곳으로 이동해 다른 방향에서 경치를 구경하고 싶다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군.
'몰라 보니 후면이라 전연으로 보오리라 / 배 대머라 사공들이 풍량이 일지 않아 / 충파로 돌아 저어 충석전면 보게 하라'에서 알 수 있다.

✔ **천상의 인물과 지상의 인물이 협력하여 만든 결과물이 ㉡라고 인식하고 있군.**
(가)를 통해 천상의 인물과 지상의 인물이 협력하여 충석정 주변의 기암괴석을 만들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하무새(하나라 우임금)'나 '영성' 등을 언급한 것은 아무리 솜씨 좋게 돌을 다듬어도 충석정 주위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기암괴석의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 ④ 뛰어난 풍경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를 소재로 삼아 시를 창작한다고 생각하고 있군.
'기괴히 꾸땀다가 세인의 노래게 되야 / 시 짓고 노래하여 기러기만 위한 것인가'에서 알 수 있다.
- ⑤ 돌 중에서는 ㉡가, 물 중에서는 ㉡가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군.
'물로는 동해수요 외로는 금강산과 / 폭포로는 구룡이요 돌로는 충석이라'에서 알 수 있다.

24 작품의 이해 정답률 83% | 정답 ③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의 '신월'은 오래된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더 중시하는 삶의 자세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수〉의 종장은 해가 저물 무렵에 새 달이 뜨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신월'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소재로 볼 수 있다.
- ② 〈제4수〉의 '남'은 화자의 삶을 지켜보며 그에 대해 정당한 판단을 내리는 인물로 볼 수 있다.
〈제4수〉의 '내 말도 남이 마소 남의 말도 내 않겠네'를 볼 때, '남'이 화자의 삶을 지켜보는 존재라 여길 수 있지만, '마소'를 볼 때 화자의 삶에 대해 정당한 판단을 내리는 인물이라 할 수 없다.
- ✔ **〈제6수〉의 '술'은 자연과 어울리며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생활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수〉의 내용을 볼 때, '술은 '물', '외', '달'의 자연과 어울리며 풍류를 즐기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 ④ 〈제1수〉의 '석양'과 〈제6수〉의 '외'는 모두 학문 수양에 힘 쓰도록 깨우침을 주는 존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수〉의 '석양'은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 주는 것이고, 〈제6수〉의 '외'는 화자가 술을 먹는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석양'과 '외'를 학문 수양에 힘쓰도록 깨우침을 주는 존재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 ⑤ 〈제4수〉의 '검다 희다 하나니'와 〈제6수〉의 '놀고'는 모두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수〉의 '검다 희다 하나니'는 화자의 삶에 참견함을 드러낸 것이고, 〈제6수〉의 '놀고'는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검다 희다 하나니'와 '놀고'가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없다.

25 서술 방식 파악 정답률 77% | 정답 ②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황에 따라 의성어를 다채롭게 구사하여 현장감을 부각하고 있다.
(다)를 통해 의성어를 다채롭게 구사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연상을 통해 다양한 대상을 열거하며 공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다)에서는 친구에 대한 생각이 술과 안주에 대한 연상으로 이어지고, 안주에 대한 생각이 제주 배에 대한 연상으로 이어지며, 제주 배에 대한 생각이 여러 지인들에 대한 연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다)에서는 연상을 통해 동해의 다양한 안주와 제주 배를 타고 온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 지인들의 사연을 열거하며 동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 ③ 말줄임표를 통해 과거의 연인과의 재회에 대한 회의감을 표현하고 있다.
(다)에서 말줄임표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그대네 물가에 말이 많음을 생각하여 제시한 것이지 과거의 연인과의 재회에 대한 회의감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 ④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다)에서 '그대네 물가에 말이 많'을 간접적으로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지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말을 간접 인용하여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 ⑤ 지역의 독특한 조리법들을 비교하며 그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다)에서 현재 '나'가 있는 지역의 요리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지역의 독특한 조리법들을 비교하지는 않고 있다.

26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률 74% | 정답 ①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은 화자가 위치한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은 화자가 은거하는 곳을 청산과 녹수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위치한 공간적 배경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 ② ㉢은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글쓴이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은 아이들이 제주 배의 움직임에 따라 열심히 따라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므로,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글쓴이의 태도와 관련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은 아이들이 파도를 피해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은 아이들이 제주 배의 움직임에 따라 열심히 따라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므로, 아이들이 파도를 피해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없다.
- ④ ㉤은 농촌 생활의 즐거움을, ㉡은 어촌 생활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은 화자가 위치한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지, 농촌 생활의 즐거움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은 어촌 아이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어촌 생활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⑤ ㉠과 ㉢은 모두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과 ㉢ 모두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있다.

27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의 감상 정답률 42% | 정답 ③

<보기>를 참고하여 (가) ~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 작품에서는 특정한 장소에 대한 체험을 다룰 때 주로 풍경이나 자연물과 관련한 정서적 반응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 거주할 때 나타나는 삶의 자세나 자신이 알게 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가)는 작가가 충석정 일대를 기행한 감흥을 노래하며 묵민관으로서의 역할을 떠올린 것이고, (나)는 입실에 은거하던 작가가 한가롭게 지내는 생활이나 주변 자연물에 대한 친근감을 노래한 것이다. 그리고 (다)는 함흥에 체류하던 작가가 인접한 동해의 매력을 전하며 흥취를 드러낸 것이다.

- ① (가)에서 화자는 '천하의 두 충석은 응당 다시 없으려니'라며 자신이 기행한 충석정 일대의 경치에 대한 경탄을 드러내고 있군.
(가)에서 화자가 '천하의 두 충석은 응당 다시 없으려니'라고 한 것은 자신이 보는 충석정 일대의 경치가 다른 곳에서 결코 볼 수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가)에서 화자는 '천 리를 멀다 말고 결단고 찾으리라'라며 충석정 일대의 장관과 관련지어 벼슬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떠올리고 있군.
'정관을 다한 후의 다시금 혼자 말이 / 괴외가길 하온 사람 이같은 이 있다 하면 / 천 리를 멀다 말고 결단고 찾으리라'는 충석정 일대의 훌륭한 경치와 비견할 만한 인재가 있으면 반드시 찾아서 나래에 도움을 주겠다는 묵민관(백성들)을 다스려 기르는 벼슬이치)으로서의 역할을 떠올리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나)에서 화자는 '시름 풀자 하노라', '고산 불고정이 좋아 늙는'이라며 불고정에 서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며 한가롭게 지내는 삶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군.
〈제1수〉는 혼자서 술을 마시며 시름을 푸는 상황이고, 〈제4수〉는 자신의 삶에 대해 손쉽게 평가하는 '남'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 따라서 (나)에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며 한가롭게 지내는 삶의 자세가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나)에서 화자는 '달에 논들 어머리'라며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연물에 대한 친근감을 표현하고 있군.
'달에 논들 어머리'는 달과 어울려(달빛을 감상하며) 풍류를 즐기겠다는 흥취를 드러낸 것으로, 달이라는 자연물에 대한 친근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다)에서 글쓴이는 '쳐녀 하나가 나를 무척 생각하는 일', '그 영어를 잘하는 총명한 사년생 금이'라며 자신이 알게 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군.
(다)에서 글쓴이가 '쳐녀 하나가 나를 무척 생각하는 일', '그 영어를 잘하는 총명한 사년생 금이'라 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를 떠올리며 자신이 알게 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8~30 현대시 정답률 90% | 정답 ②

(가) 정지용, 「장수산 1」

감상 이 시는 깊은 겨울 산의 고요한 정경을 '별목정정'을 통해 환기하며 시작한다. 다람쥐도 쫓지 않고 멧새도 울지 않는 절대 고요와 부동의 공간 속에서 화자는 조할히 늙은 웃짓 중의 맑고 깨끗한 정신적 경지를 뒤따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그렇지만 화자는 바람도 울지 않는 깊은 산에 쉽게 동화되지 못하고 심히 흔들리는 내면의 동요를 느낀다. 그러면서도 차고 유연히 이 겨울을 견디겠다는 견고한 삶의 자세를 드러내며 사상을 마무리한다. 흔들리는 내면의 시름 속에서도 정신적 긴장을 늦추지 않는 화자의 치열한 정신적 고투가 역력히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주제 탈속적 공간에서의 시련 극복 의지

표현상의 특징

•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사상을 전개함.
•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공간의 분위기를 드러내 줌.
• 예스러운 말투를 사용하고 있음.

(나) 고재중, 「고요를 시창하다」

감상 이 시는 초록으로 물든 오월의 마당을 둘러싼 깊은 고요를 노래하고 있다. 수국 송이처럼 몽실 몽실 부르는 오월의 고요 속에서 화자는 숭순주 한 잔에 그리운 어머니와 아버지의 고요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초록 바람에 반짝반짝 누설해 놓은 오월의 은밀한 연주를 들으면서 고요에 물들어 간다. 적극적인 시공진 마루에서 마주한 오월의 고요를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통해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주제 적극적인 시공진에서 마주한 오월의 고요

표현상의 특징

•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고요'를 생생하게 구체화함.
• 대사를 익인화하고 있음.
• 일부 연을 명시로 종결하여 여운을 주고 있음.

★★★ 문단을 가르는 문제!
28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률 34% | 정답 ①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아름드리 큰 술’과 ‘베어짐직도 하이’를 관련지어 인간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는 자연의 속성을 환기하고 있다.**
‘아름드리 큰 술’이 ‘베어짐직도 하이’라고 한 것은 깊은 산속에서 큰 나무들이 베어지며 내는 소리를 환기 하여 깊은 산속의 고요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 인간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는 자연의 속성을 환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 ② ‘다람쥐도 쫓지 않고’와 ‘햇새도 울지 않아’를 연달아 제시하여 시적 공간의 적극적인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다람쥐도 쫓지 않고’와 ‘햇새도 울지 않아’가 연달아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시적 공간인 ‘장수산’이 그만큼 적극하다는 것을 부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③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도 ‘웃고 올라간’ 행동을 제시하여 세속적인 욕심에서 벗어난 인물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
‘웃절 중’은 화자에게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도 ‘웃고 올라’가고 있고, 이에 화자는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용새를 줌과 있다. 따라서 ‘웃절 중’의 모습은 세속적인 욕심에서 벗어난 인물의 모습을 암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 ④ ‘바람도 일지 않는’과 ‘심히 흔들리우노니’를 대비하여 시적 공간에 동화하지 못하는 화자의 내적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화자는 ‘바람도 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심히 흔들’린다고 여기고 있는데, 이는 대비적 표현을 통해 적막 한 시적 공간에 동화하지 못하는 화자의 내적 고뇌를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오오 견디랴다’를 ‘차고 울연히’와 연결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오 견디랴다’를 ‘차고 울연히’와 연결하고 있는데, ‘울연히’가 ‘홀로 우뚝한 모양’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오오 견디랴다’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

★★ 문제 해결 꿀-팁 ★★

- ▶ 많이 틀린 이유는?
이 문제는 작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오답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 ▶ 문제 해결 방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의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시의 내용을 이해할 때는 시적 화자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시적 화자를 바탕으로 (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시적 화자의 상황: 고요가 뻘을 저리우는 깊은 산중에 있음.
- * 시적 화자의 태도
 - 여섯 판을 지고 웃고 올라 간 웃절 중을 볼 때: 웃절 중이 남긴 내용새를 주우려 함.
 - 고요에도 심히 흔들리고 있음(심적인 필요): 울연히 견디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이처럼 시적 화자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정답인 ①의 경우, 화자는 고요가 뻘을 저리우는 산중에 있으므로, ‘아름드리 큰 술’과 ‘베어짐직도 하이’는 산속의 고요함을 강조하는 것임을 알았을 것이다. 또한 시적 상황을 통해 ‘다람쥐도 쫓지 않고’, ‘햇새도 울지 않아’는 화자가 있는 시적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부각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시의 내용을 이해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를 ‘읽기’를 한다고 여기면서 한 번 꼼꼼히 읽어 보고, 그 다음에는 시적 화자를 중심으로 또 읽는다면 거의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시간도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지도 않으므로 두 번 정도 반드시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한다.

29 시상의 흐름 파악 정답률 63% | 정답 ②

[A]~[C]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새암’은 부부는 ‘수국송이’의 모습에 비유되어 풍성한 생명력을 낳는 존재로 인식된다.
[A]에서 부부는 ‘수국송이’의 모습에 비유된 것은 ‘고요’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A]에서 ‘마당’을 물들인 ‘초록’은 [B]에서 점점 확산하여 ‘덩굴장미’의 색채와 어우러지며 계절감을 부각한다.
[A]에서는 고요가 초록을 날았다는 표현을 통해 마당을 물들인 초록에 주목하도록 한다. 이어지는 [B]에서는 초록의 군림이 점점 더해진다는 표현을 통해 마당에 초록이 점점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여기에 고요의 심장을 붉은 진동으로 물들이는 덩굴장미의 붉은 색채가 어우러지면서 오월의 계절감이 부각된다.

- ③ [B]에서 ‘초록’은 ‘마당’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묘사되어 마당에 ‘붉은 진동’을 방해하는 힘으로 인식된다.
[B]를 통해 ‘초록’이 ‘마당’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묘사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고요의 심장을 붉은 진동으로 물들이는 주체’는 ‘덩굴장미가 내는 향기’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B]에서 ‘마당’에 군림하던 ‘초록’은 [C]에서 ‘초록바람’으로 변주되어 다시 계절이 바뀔 것을 암시한다.
[B]에서 ‘마당’에 군림하던 ‘초록’이 [C]에서 ‘초록바람’으로 변주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주를 통해 다시 계절이 바뀔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없다.
- ⑤ [C]에서 ‘초록바람’은 ‘오월’이 누설하는 것들을 감추어 줌으로써 ‘오월’의 신비로움이 지속되도록 한다.
[C]에서 ‘초록바람’에 의해 ‘오월’이 반짝반짝 누설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의 감상 정답률 64% | 정답 ⑤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에서 조소하고 장밋한 상태인 ‘고요’를 형상화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고요한 상태를 직접 드러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소리를 활용하여 고요를 부각하는 효과를 얻기도 한다. 또한 고요에 어울리는 다양한 소재나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요를 형상화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고요는 시에서 시적 분위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화자의 내면세계를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 ① (가)의 ‘눈과 밤이 종이보담 희고네!’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눈 내린 겨울 달밤의 고요한 분위기가 드러나도록 한 것이겠군.
(가)의 ‘눈과 밤이 종이보담 희고네’는 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하얗게 눈이 내린 겨울 달밤의 고요한 장수산의 분위기가 잘 드러나도록 하고 있다.

- ② (나)의 화자가 떠올린 추억 속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시적 상황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정오’의 고요에 어울리는 인물로 볼 수 있겠군.
(나)의 화자가 송순주 한 잔에 떠올린 추억 속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각 ‘소박한 고요’와 ‘묵묵한 고요’를 담고 있는 인물들로, 화자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정오’의 고요에 잘 어울리는 인물들이라 볼 수 있다.
- ③ (가)의 ‘땡아리 소리 찌르렁’과 (나)의 ‘동박새가 / 딱 한 번 울어서’는 모두 소리를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고요한 상황이 부각되도록 한 것이겠군.
‘찌르렁’ 하고 뚝뚝 같은 깊은 산속의 메아리 소리와 딱 한 번 들린 동박새의 울음소리는 모두 고요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활용된 소리이다. 고요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소리를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고요가 부각되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 ④ (가)의 ‘고요가 차라리 뻘을 저리우는데’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나)의 ‘삼베울만치나 무수한 고요’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요를 형상화한 것이겠군.
(가)의 ‘고요가 차라리 뻘을 저리우는데’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요를 표현한 것이고, (나)의 ‘삼베울만치나 무수한 고요’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요를 형상화한 것이다.

✔ (가)의 ‘한밤이 꿈을 걸음어란다?’는 화자 내면의 고요가 외부 세계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의 ‘더 은밀한 연주를 듣는다’는 외부 세계의 고요가 화자 내면의 동요를 잠재우게 되었음을 나타낸 것이겠군.
(가)의 화자는 바람도 일지 않는 장수산의 고요에도 심히 흔들리는 시름을 안고 있는 인물이므로, 화자 내면의 고요가 외부 세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1~34 고전 소설 정답률 65% | 정답 ④

작자 미상, 『이대봉전』

감상 이 작품은 제목이 남자 주인공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남자 주인공인 이대봉의 활약 외에도 여자 주인공인 장애향의 활약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장애향은 남복을 입고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 큰 공을 세운다. 이와 같은 장애향의 이야기는 당대의 여성 독자층 증가, 시대에 따른 여성 의식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 이 작품에서 남녀 주인공인 이대봉과 장애향은 부모끼리 혼인을 약속한 사이이지만, 두 사람은 어려서 고난을 겪고 따로 떨어져 생활하게 된다. 이후 두 사람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는 데 큰 공을 세운 후 만나 혼인을 태평성대를 이루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주제 이대봉의 영웅적 활약

작품 줄거리 명나라 때 이 상사의 아들 이대봉은 장한림의 딸 애향과 혼인하기로 약속한다. 그런데 간신 왕희가 이 상사를 모함하여 귀양을 보내며, 뱃사공에게 이 상사 부자를 죽이도록 한다. 그러나 왕왕의 도움으로 이 상사는 외딴 섬에서 연명하게 되고, 이대봉은 천축국에 들어가 도승을 만난다. 한편, 장한림 부부는 이 상사 부자가 귀양가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을 얻어 죽는다. 부모를 잃은 애향은 시름 속에 살아가는데, 왕희는 자신의 아들을 애향과 혼인시키려 한다. 이에 애향은 남자 복장을 하고 도망쳐 호 시에게 의탁해 있다가 과거에 응시해 장원급제를 한다. 그리고 선주족이 침범하자 대원수가 되어 이를 격파한다. 한편, 애향이 있는 사이 흉노족이 침공하여 천자가 항복을 하라는 위기를 맞는다. 이때 이대봉이 도승의 지시에 따라 달려와 천자를 구하고 흉노족을 물리 낸다. 이대봉은 흉노족의 항복을 받고 풀려오던 중, 죽은 줄만 알았던 부친을 만난다. 천자는 이 상사 부자에게 높은 벼슬을 내린다. 천자는 애향에게도 벼슬을 내리지만 애향은 자신이 여자인을 고백한다. 그리하여 이대봉과 애향은 혼인을 하게 되고, 천자는 이대봉을 초왕에 봉한다. 그 뒤 이대봉은 천자의 딸과 혼인하여 부자가 되고, 재차 침입한 선주족과 흉노족을 애향과 함께 물리치는 공을 세운다.

31 인물의 이해 정답률 73% | 정답 ③

뒷말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우는 축날이 대패하고 죽자 장 원수와 계속 싸워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군.
선우는 장대에 올라 축날이 명나라 군에 대패하고 죽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도망치고 있다. 이를 통해 선우가 장 원수와 계속 싸워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장 원수는 선우가 달아나게 되면 뒷날의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았군.
장 원수는 선우를 죽이지 않으면 후환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 흉노왕은 황제가 항복하러 할 때 대봉이 공격할 것을 미리 집착했군.
흉노왕은 황제가 항복하러 나옴을 보고 크게 기뻐하여 진을 굳게 하지 않았다가 뜻밖에 진중이 대란한 것을 경험하였다. 이는 흉노왕이 대봉의 공격을 미리 집착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 ④ 동돌수는 자신의 진중으로 혼자 공격하러 들어온 대봉에 대해 분개했군.
동돌수는 자신의 진중으로 공격하러 들어오는 대봉을 보고 사냥개 출거보고 머리킈리키 위로 뺨친 채 소리를 버럭같이 지르고 있다. 이는 동돌수가 대봉에 대해 분개했음을 나타낸다.
- ⑤ 대봉은 자신의 위용을 드러내며 흉노왕에게 항복하라고 말했다군.
대봉은 주작정군을 파하고 현무정군을 보내 동돌수의 머리를 베어 칼끝에 꿰어 들고 큰소리로 흉노왕에게 항복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봉이 자신의 위용을 드러내며 흉노왕에게 항복하라고 말했음을 알 수 있다.

32 배경의 이해 정답률 62% | 정답 ④

㉮~㉞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㉞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은 인물들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㉞에서 ㉞에 이르기까지 장 원수가 본전에서 나와 축날을 죽인 뒤 다시 본진으로 돌아가기까지의 시간이므로, 인물들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 ② ㉮과 ㉞에서 배경이 어두워지는 것은 각각 내적 갈등의 시작과 종결을 의미한다는데는 점에서 대립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은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두워지는 것이고, ㉞은 대봉이 진연을 염하여 나타난 현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 ㉞에서 배경이 어두워지는 것을 각각 내적 갈등의 시작과 종결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㉞과 ㉞에서 하늘이 밝아지는 것은 사건의 반전을 예고하고 있다.
㉞은 아침이 되어 대봉이 본진으로 돌아오는 시간임을 드러낸 것이고, ㉞은 대봉은 진연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 사라져 흉노왕이 군사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따라서 ㉞과 ㉞에서 하늘이 밝아지는 것이 사건의 반전을 예고한다고 할 수 없다.

✔ ㉞으로 드러난 인물의 역량이 전투에서 발휘된 결과가 ㉞ 이후에 확인되고 있다.
대봉은 진연을 염하여 후토신징과 기백뇌공을 불러 ㉞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급한 비가 크게 오고 뇌성이 진동하여 산천이 무너지는 듯하자 적진 장졸들이 겁을 먹고 대오를 지키지 못해 금사진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자 대봉이 이리저리 다니며 여러 명의 적군 장수들과 수많은 군사들을 죽인다. 이와 같은 활약상은 대봉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 준다. 이렇게 활약한 대봉은 흉노왕에게 항복을 요구하는데, ㉞의 변화가 일어난다. 천자가 밝아진 것인데, 이를 통해 대봉에 의해 흉노의 수많은 군사들이 죽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㉞으로 드러난 인물의 역량이 전투에서 발휘된 결과가 ㉞ 이후에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 ⑤ ㉞의 변화가 인물에 의해 인위적으로 일어난 것이인 ㉞에서 해의 위치가 바뀐 것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㉞은 대봉이 흉노왕을 쫓아 무주에 도착한 시간이 저녁임을 드러낸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33 서사의 전개 양상 이해 정답률 40% | 정답 ②

㉞, ㉞에 주목하여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 원수는 ㉞에 이르러서야 축날의 간계를 간파했지만 ㉞에서 축날과 싸워 우월한 지위를 점했다.
장 원수는 ‘축날의 총계인 줄 알고 물을 피하여 동으로 가는 체하다’가 ㉞에 들어가 군사를 쉬게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장 원수의 군사들이 ㉞에 있다가 ㉞로 간 것을 축날이 모름으로써 전황이 장 원수에게 유리하게 되었다.

축날의 수공에 의해 수세에 몰렸던 장 원수는 수공을 피해 ㉞로 가서 군사를 쉬게 하고, 이어 원수는 자신의 군대를 뒤쫓아 온 축날의 추격 병을 급습해 죽임으로써 자신의 군대가 ㉞로 가서 매복하는 것을 축날의 군사들이 알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장 원수의 군대가 ㉞로 간 것을 모르는 축날의 군대는 결국 같은 편인 굴막대의 복병에 의해 공격을 당해 많은 군사들이 죽게 되고, 축날은 평수로 달아나다가 석공달의 복병을 만나 남은 군사들마저 거의 다 잃고 도망가게 된다. 또한 축날은 장 원수 군사가 ㉞에 매복해 있다고 생각하고 ㉞의 좌편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장 원수를 만나 결국 죽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장 원수의 군사들이 ㉞에 있다가 ㉞로 간 것을 축날이 모름으로써 전황이 장 원수에게 유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장 원수는 ㉞에서 축날의 기병들이 자신을 공격한 행동들을 ㉞에서 축날의 잘못을 꾸짖는 근거로 언급했다.
㉞에서 축날의 기병들이 장 원수를 공격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장 원수는 ㉞로 축날의 군사들을 유인하여 ㉞로 축날의 군사들이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쟁의 승기를 잡았다.
장 원수는 ㉞에서 선 뒤 ㉞로 옮기게 되고, 축날은 장 원수 군사가 ㉞에 매복해 있다고 생각하고 ㉞의 좌편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장 원수를 만나 죽게 된다. 따라서 ㉞로 축날의 군사들이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쟁의 승기를 잡았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 ⑤ 장 원수의 군사들을 축날의 군사들이 ㉞에서 ㉞로 뒤쫓아옴으로써 축날의 군사들이 굴막대의 복병을 만나게 되었다.
장 원수의 군사들이 ㉞에서 ㉞로 옮긴 것을 축날의 군대는 모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의 감상 정답률 69% | 정답 ③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대봉전』에는 여자 주인공인 장애향과 남자 주인공인 이대봉의 서사가 각각 전개되는 부분이 있다. 두 서사는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는데, 세부 요소의 측면에서 보면 서로 구별되는 요소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특징은 장애향이 선우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군담과 이대봉이 흉노왕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군담을 통해 잘 드러난다. 두 군담의 서사는 별개의 공간에서 전개되면서 남녀 주인공의 특성을 나타내며 두 주인공의 대등한 면모를 유추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① 장 원수는 ‘세찬 물결’로, 대봉은 ‘진중에서 싸’여 위기에 처한 것은 인물을 위기 상황에 처하게 한 세부 요소의 측면에서 두 군담에 서로 구별되는 요소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
세찬 물결과 진중에 싸이는 것은 인물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세부 요소의 측면에서 보면 수공에 의한 것과 적군에 의해 포위당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장 원수가 ‘축날의 머리를 베’히는 것과 대봉이 ‘동돌수의 머리를 베’히는 것은 무용을 펼치는 측면에서 두 인물이 대등한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
장 원수가 축날의 머리를 베고, 대봉이 동돌수의 머리를 베는 것은 모두 두 인물의 무용이 뛰어남을 나타낸다. 이렇게 두 인물 모두 무용이 뛰어난 것은 두 인물의 대등한 면모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장 원수가 선우에게 ‘크게 외쳐’ 한 말과 대봉이 흉노왕에게 ‘크게 외쳐’ 한 말은 각각 장 원수가 예지 능력을 지니고 있고 대봉이 슬법에 능한 인물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
장 원수는 선우에게 크게 외쳐 축날이 이미 죽었으니 빨리 나와서 자신의 칼을 받으라고 한다. 이 말은 장 원수의 위용과 웅맹함을 주지만, 장 원수가 예지력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대봉은 흉노왕에게 빨리 나와 항복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봉의 위용과 웅맹함이 드러나고 있다.

- ④ 장 원수에게 패하여 선우가 ‘대경실색하여’ 도망치는 것과 대봉에게 패하여 흉노왕이 ‘대접하여’ 도망치는 것은 두 군담의 서사 구조가 유사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
선우가 장 원수에게 패한 것에 놀라서 도망을 치고, 흉노왕이 대봉에게 패한 것에 놀라서 도망을 치는 것은 서사의 유사함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⑤ 장 원수는 선우와 싸우다가 ‘교지국’으로, 대봉은 흉노왕과 싸우다가 ‘앵무주’로 이동하는 것은 두 군담이 별개의 공간을배경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
〈보기〉를 통해 장애향의 군담과 이대봉의 군담이 별개의 공간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 원수가 선우와 싸우다가 ‘교지국’으로, 대봉이 흉노왕과 싸우다가 ‘앵무주’로 이동하는 것은 장애향의 군담과 이대봉의 군담이 별개의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35~45] 언어와 매체 35 한글 맞춤법에서의 준말의 이해 정답률 65% | 정답 ④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밭을) 패다’의 어간에 ‘-어’가 결합된 형태인 ‘패어’의 경우, 준말인 ‘패’로 적어도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1문단의 ‘한편 제34항 [붙임1]에서는 어간 끝 모음 ‘ㅁ, ㅂ’ 뒤에 ‘-어, -었-’이 어울릴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 것을 다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때는 반드시 준 대로 적지 않아도 된다.’를 통해, ‘(밭을) 패다’의 어간에 ‘-어’가 결합된 형태인 ‘패어’의 경우, 준말인 ‘패’로 적어도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② ‘(병이) 낫- + -아-’의 경우, ‘ㅅ’이 불규칙적으로 탈락되므로 ‘나아’로만 적고, ‘나’로 적으면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다.
1문단의 ‘하지만 어간 끝 자음이 불규칙적으로 탈락되는 경우에는, 원래 자음이 있었음이 고려되어 ‘ㅌ, ㄴ’가 줄어들지 않는다. ‘(꿀물을) 첫- + -어 → 저어/‘저’ 등이 그 예이다.’를 통해, ‘(병이) 낫- + -아-’의 경우 ‘ㅅ’이 불규칙적으로 탈락되므로 ‘나아’로만 적고, ‘나’로 적으면 한글 맞춤법에 어긋남을 알 수 있다.
- ③ ‘(땅이) 패다’의 어간에 ‘-어’가 결합될 경우, ‘패다’의 ‘ㅂ’가 모음이 줄어든 형태이므로 ‘패’로 적으면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다.
1문단의 ‘다만 모음이 줄어들어서 ‘ㅂ’가 된 경우에는 ‘-어’가 결합하더라도 다시 줄어들지는 않는다. 예컨대 ‘차-’와 ‘-아-’의 모음이 줄어든 ‘채-’의 경우 ‘(밭에) 채- + -어 → 채어/‘채’에서 보듯이 모음이 다시 줄어들지 않는다.’를 통해, ‘(땅이) 패다’의 어간에 ‘-어’가 결합될 경우 ‘패다’의 ‘ㅂ’가 모음이 줄어든 형태이므로 ‘패’로 적으면 한글 맞춤법에 어긋남을 알 수 있다.

✔ ‘(잡초를) 베- + -었- + -다’와 ‘(배게를) 베- + -었- + -다’의 경우, 준말의 형태인 ‘뺏다’로 적으면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다.
1문단의 ‘한편 제34항 [붙임1]에서는 어간 끝 모음 ‘ㅁ, ㅂ’ 뒤에 ‘-어, -었-’이 어울릴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 것을 다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때는 반드시 준 대로 적지 않아도 된다.’를 통해, ‘(잡초를) 베- + -었- + -다’와 ‘(배게를) 베- + -었- + -다’의 경우 준말의 형태인 ‘뺏다’로 적어도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⑤ ‘(강을) 건너- + -어’와 ‘(줄을) 서- + -어’의 경우, ‘ㅌ’로 끝난 어간에 ‘-어’가 어울리므로 본말로 적으면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다.
1문단의 ‘제34항에서는 모음 ‘ㅌ, ㄴ’로 끝난 어간에 어미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 것을 다루고 있다. ‘(열매를) 따- + -아-따/‘따아’, ‘따- + -았- + -다 → 댘다/‘따았다’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를 통해, ‘(강을) 건너- + -어’와 ‘(줄을) 서- + -어’의 경우 ‘ㅌ’로 끝난 어간에 ‘-어’가 어울리므로 본말로 적으면 한글 맞춤법에 어긋남을 알 수 있다.

36 준말 규정의 적용 정답률 69% | 정답 ③

뒷글을 바탕으로 ㉠~㉞을 ‘탐구 과정’에 따라 분류할 때, [A]에 들어갈 예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탐구 과정]	
○ 답지를 ㉠ 겹다(← 거두다) ○ 가시를 ㉡ 외다(← 외우다)	○ 입에 ㉢ 서들다(← 서투르다) ○ 집에 ㉤ 머물다(← 머무르다)
↓	
모음이 줄어들고 남은 자음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은 준말입니까?	아니요 →
↓ 예	
모음 어미 ‘-어, -었-’이 결합된 형태의 활용형이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 준말입니까?	아니요 →
↓ 예	
[A]	

- ① ㉠, ㉢
④ ㉡, ㉣, ㉤
③ 겹다
‘겹다(← 거두다)’는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경우로 모두 표준어에 해당한다.
- ㉢ 외다
‘외다(← 외우다)’는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경우로 모두 표준어에 해당한다.
- ㉤ 서들다
‘서들다(← 서투르다)’는 모음 ‘ㄷ’가 줄어들고 남은 자음 ‘ㄹ’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은 준말이다. 그리고 모음 어미 ‘-어, -었-’이 결합된 형태의 준말의 활용형 ‘서들어’, ‘서들었다’는 모두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⑥ 머물다
‘머물다(← 머무르다)’는 모음 ‘ㄷ’가 줄어들고 남은 자음 ‘ㄹ’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은 준말이다. 그리고 모음 어미 ‘-어, -었-’이 결합된 형태의 준말의 활용형 ‘머물어’, ‘머물었다’는 모두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 등급을 가르는 문제! 37 높임 표현의 실현 양상 파악 정답률 60% | 정답 ①

〈보기〉의 ㄱ~ㄴ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주체 높임은 화자가 문장의 주체, 곧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해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선어말 어미, 조사나 특수한 어휘 등을 통해 실현된다. 그리고 상대 높임은 화자가 청자, 곧 말을 듣는 상대에게 높임이나 낮춤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주로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또한 객체 높임은 화자가 문장의 객체, 곧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해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조사나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된다.

2024 리얼 오리지널 BOOK LIST



예비 [고1] 국·영·수
반 배치고사+3월·6월 대비
• 국어 영역
• 영어 영역
• 수학 영역



예비 [고1] 전과목
고등학교 첫 시험 및 3월 대비
• 반 배치 + 3월 [전과목]
• 3월 전국연합 [전과목]



[고1] 3개년
3개년 전국연합 모의고사 16회
• 국어 영역
• 영어 영역
• 수학 영역



미니 모의고사
하루 20분씩 가볍게 푸는 모의고사
• 고1 국어 영역
• 고1 영어 영역
• 고2 국어 영역
• 고2 영어 영역
※ 2024년 7월 발간(A4 크기)



[고1] 3개년 Light
학습 부담이 없고 가벼운 12회
• 국어 영역
• 영어 영역



[고2] 3개년 Light
학습 부담이 없고 가벼운 12회
• 국어 영역
• 영어 영역



[고2] 3개년
3개년 전국연합 모의고사 16회
• 국어 영역
• 영어 영역
• 수학 영역



[고1·2·3] 영어 듣기
영어 듣기 문제만 화차별 구성
• 고1 영어 듣기
• 고2 영어 듣기
• 고3 영어 듣기



[고1·2·3] 영어 독해
영어 독해 문제만 화차별 구성
• 고1 영어 독해
• 고2 영어 독해
• 고3 영어 독해



[고3] 3개년
3개년 교육청+평가원 [총17회]
• 국어(공통+화작·언매)
• 영어 영역
• 수학(공통+확률과 통계)
• 수학(공통+미적분)



[고3] 5개년
6·9·수능 평가원 기출만 15회
• 국어(공통+화작·언매)
• 영어 영역
• 수학(공통+확률과 통계)
• 수학(공통+미적분)



[고3] 화작·언매
3개년 21화+신출제 21회 [총42회]
• 화법과 작문
• 언어와 매체



[고3] 사탐·과탐
기출문제집 최대 문항 수록 840제
• 사회·문화
• 생활과 윤리
• 지구과학 I
• 생명과학 I



[고3] 3개년 Light
학습 부담이 없고 가벼운 15회
• 국어(공통+화법과 작문)
• 국어(공통+언어와 매체)
• 영어 영역



정가 16,000원

리얼 오리지널 | 수능기출 학력평가 3개년 모의고사 Light [고3 국어 | 공통 + 언어와 매체]

발행처 수능 모의고사 전문 출판 입시플라이 발행일 2023년 12월 20일 등록번호 제 2017-0022호

홈페이지 www.ipsify.com 대표전화 1566-9939 구입문의 02-433-9975 내용문의 02-433-9979 팩스 02-433-9905

발행인 조유경 편집책임 양창열 김유 이혜민 임명선 김선영 물류관리 김소희 이혜리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615 정민빌딩 3층

※ 페이지가 누락되었거나 파손된 교재는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 발간 이후 발견되는 오류는 입시플라이 홈페이지 정오표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